

대한부인종양·콜포스كو피학회 소식

제호 : 대한부인종양·콜포스쿠피학회 소식 | 발행일 : 2010년 4월 | 발행인 : 이승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5-5번지 102호 (135-010)
TEL : (02) 512-5915 | FAX : (02) 512-5421 | www.ksgoc.or.kr | E-mail : gynecancer@gynecancer.or.kr



KORE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AND COLPOSCOPY



대한부인종양·콜포스쿠피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립 이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 온 저희 학회는 특히 2009년에 이르러 학회 학술지인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JGO)가 SCIE에 등재되면서 명실공히 세계적인 학회로 우뚝 서게 되었으며, 향후 부인종양학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을 놓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학회 산하 대한부인종양연구회의 눈부신 활약에 힘입어 세계 유수의 부인종양 관련 단체들과 교류하며 국제 공동 임상연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 점은 고무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이와 같은 발전은 여러 명예회장님 이하 진취적이고 역량있는 연구자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었음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다 엄격한 국제 공동 임상연구에 적극 참여하고, 이제 막 시작한 JGO가 확고 부동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보듬어 가며, 젊은 연구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연구에 매진하도록 격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회원 간의 결속을 다져 모두의 힘을 모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매서운 추위가 지나면 풍년이 오고 비온 뒤 땅이 굳듯이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력한다면 더 나은 내일이 오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회장 이응수

contents

2010년 4월(통권 제16호)

- 2** 회장 인사말
- 3** 25th International Papillomavirus Conference (IPC)를 다녀오면서
- 6** Gynecologic Oncology Group 79th Semi-Annual Meeting 참관기
- 8** 100th 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AACR) meeting in 2009 참관기
- 9** 2009 제8차 대한부인종양연구회 심포지엄 및 워크숍
2009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제24차 학술대회 참관기
- 11** 제25차 KSGOC 학술대회 프로그램
- 13** FIGO 2009 참관기
- 15** ESGO 2009 참관기
- 17** APAGE 2009 참관기
- 19** 2010 GOG (Gynecologic Oncology Group) 80th Semi-Annual Meeting 참석기
- 21** 제2차 부인암 전문의를 위한 Cadaver Workshop 참관기
- 23** 41st Annual Meeting on Women's Cancer
- 25** 2010 Biennial ASCCP (The American Society for Colposcopy and Cervical Pathology) 참관기
- 27** 부인종양 논문 의무 제출자 학술대상, 우수논문상 수상 내역
- 29** 학회 회무보고
- 46** 회원동정
- 47** 2010년 주요 학회 일정
- 48** 편집후기
- 49**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조직도

25th International Papillomavirus Conference (IPC)를 다녀오면서



더와이즈병원 전문의 이성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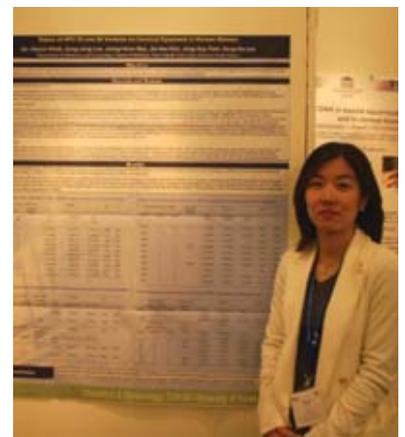
2009년 5월 8일부터 시작된 25th International Papillomavirus Conference (IPC)를 다녀왔다. 이번 학회는 여성암 예방의 획기적인 개념이라 할만한 두 종류의 HPV Vaccine이 임상에 널리 도입이 되면서 장기간의 추적 관찰 결과와 앞으로의 도입 가능성이 있는 차세대 백신의 소개 및 2008년 6월부터 영국에서는 Bivalent Vaccine (Cervarix, GSK Co.)이 “British Department of Health’s immunization program”에 의하여 국가 백신 사업으로 12-18세 여아에게 접종이 시행된지 약 1년을 맞이하면서 HPV 백신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참여가 매우 증가된 상태에서 열리는지라 무척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학회가 열린 Malmö라는 도시는 북유럽의 대표적인 나라인 스웨덴 최남단의 도시로 덴마크의 코펜하겐과 무척 가깝지만 배로 들어갔던 도시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학회 Poster의 그림 기본 배경으로 등장하는 이 다리가 코펜하겐과 스웨덴 말뚤 사이 해협에 놓여짐으로써 스칸디나반도와 유럽 본토를 잇는 최초의 또한 유일한 육로가 열리면서 도시가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학회를 참석하면서 전반적으로 받은 감동은 이런 거대한 다리와 북유럽 정취를 느끼게 해주는 붉은 건축물들이 아니라 처음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웅장한 자연과, 그 안에 묻어있는 다양한 종류의 초록색 정취였다. 그 안에 있



으면 초록색에 취해버릴 것 같은 공기, 싸늘한 바람에 흔들리는 작나무, 백야를 느끼게 하는 밤 10시까지 지지 않는 눈부신 햇살까지……. 이제 막 봄을 맞이한 그곳에 있으니 secret garden의 “serenade to spring”이라는 음악이 들리는 듯 하였다.

이번 학회에는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이 대거 참석하였는데, 가톨릭대 박종섭 교수님, 김찬주 교수님, 서울의대 송용상 교수님, 연세의대 김영태 교수님, 아산병원 김종혁 교수님, 삼성의료원 김병기 교수님, 부산의대 김기형 교수님, 아주의대 유희석 교수님, 계명대의대 조치흠 교수님께서 일정을 같이 해주셨고 전임의로는 가톨릭의대에서 이성하(필자), 김진휘, 레지던트 곽세현 선생님이 함께 참가하였다. 학회 장소는 스웨덴 제 3의 도시 말뚤였고 Turning Torso라는 아주 예술적이면서 높은 건물 옆에 학회장이 위치하고 있었다. 학회일정은 3일 동안의 educational workshop을 거친 후 4일 동안의 본 학회로 구성되어 있었다.

25번째 IPC (International Papillomavirus Conference)의 본 학회 기간중의 모든 session에 열기가 높았으며, 활발한 discussion이 이루어졌고, 시간 내 충분한 결론이 나지 않은 쟁점 부분들은 다시 포스터 앞에서 토론하는 모습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본 학회 시작 전날인 5월 10일 저녁 6시에 Malmö Opera House에서 열린 opening ceremony는 HPV와 자궁경부암과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2008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Harald zur



학회장에서 전임의 이성하

Hausen 교수(DKFZ, German Cancer Research Center, Heidelberg, Germany)가 특별 강연(Inauguration Lecture)을 하면서 더욱 의미깊은 밤이 되었다.

Conference는 총 32개의 session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각각의 session별로 각각 10개 이상의 oral presentation과 포스터가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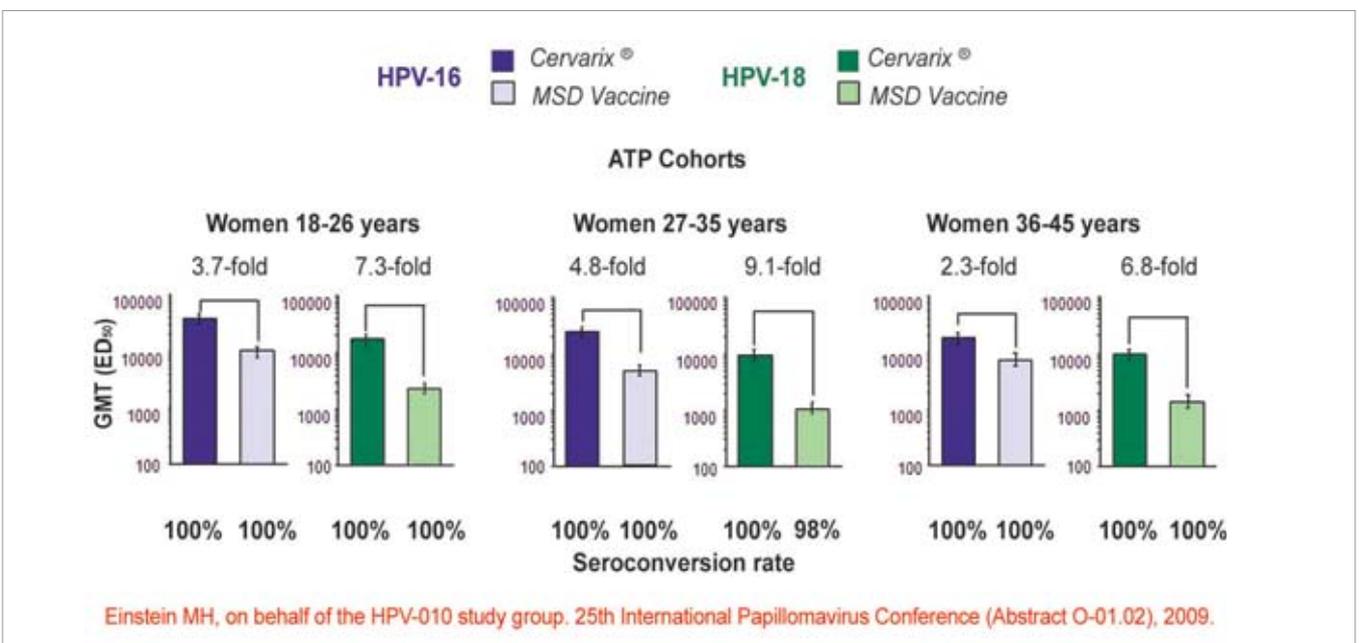
Educational Session에는 “The burden of HPV-associated diseases,” “Cervical cancer: the natural history of the disease”, “Cervical cancer screening: overview of HPV tests and new proposals”의 기본적인 내용 외에도, HPV 예방 접종이 국가 백신으로 이루어지는 영국등의 국가가 있기 때문에 “Cervical screening in populations vaccinated against HPV”이라는 special session이 흥미진진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Therapeutic vaccines and immune modulation”이라는 session에서는 향후 도입 가능한 차세대 HPV 백신에 대한 idea들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본 학회 기간인 5월11일부터는 “Experimental Therapeutics: Virus Life Cycle,” “Viral genome replication and antivirals,” Zur Hausen 교수와 같은 기관인 독일의 DKFZ에서 온 L. Gissmann 교수가 좌장을 맡아서 향후 HPV치료백신의 기본이 되는 “Cellular Immunology, Basic sciences”에 대한 session도 있었다. 그외에 HPV oncogenesis와 관련하여 “Viral attachment and entry,” “Transformation and Carcinogenesis” 등의 session이 있었고 HPV Epidemiology와 관련된 학자들중에서 미국 Seattle의 Fred Hutchinson Cancer Research Center의 D.Galloway, France

의 Lyon에 있는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 온 Silvia Franceschi 등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HPV백신의 시대를 맞이하여 “Molecular markers & HPV testing methods” 등도 흥미로운 session이었다.

특히 “Therapeutic vaccines and immune modulation” session에서는 HPV에 대한 immune response를 분석하여 therapeutic vaccines의 idea를 얻는 부분이 흥미로웠고 prophylactic vaccine에 이어 cervical cancer와 HPV induced disease의 정복에 기여할 차세대 치료제의 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었다.

이번 학회의 가장 흥미진진한 또, 놓칠 수 없는 주제는 “Prophylactic HPV vaccine”의 update된 보고자료에 있었다. GSK의 2가 백신 Cervarix는 HPV 16번과 18번 모두에서 7.8년 동안 antibody titer가 높게 유지되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general population 18,644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large scale phase III study인 PATRICIA study의 final result가 발표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특히 교차 예방 효과(cross protection) 즉, HPV-31,33,45,51,52 관련성 CIN 병변에 대한 우수한 효과가 보고되어, cervical cancer와 CIN에 더욱 ‘effective’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Merck사의 4가 백신 가다실(GARDASIL)에 대한 update결과로는 HPV 16에 대한 antibody titer가 8.5년까지 꾸준히 유지되는 것을 보여 주었다. HPV 18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으나 현재까지의 data로는 높은 수준의 efficacy를 지속적으로 보여 주고 있었다.





노르웨이 플룸- 미들간 기차 여행에서 교수님들과 함께



덴마크 로젠버그 궁전에서 교수님들과 함께



스웨덴의 어느 호수 앞에서 김찬주 교수님과 함께

또한 두 백신의 immunogenicity를 비교한 head to head trial의 결과가 앞의 그림과 같이 발표가 되었다.

마지막, 학회의 휘날래는 디너 파티였다. 장소는 덴마크 코펜하겐의 티볼리 공원이었고 1시간이면 기차를 타고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이 공원은 1984년에 만들어진 곳으로 미국의 디즈니랜드의 표본이 되었다고 한다. 작고 아담한 공원에는 꽃과 어

우러진 은은한 조명이 분위기를 한층 돋구었고 어느 연령층이나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공원과 놀이기구의 구성이 잘 배치되어 있었다. 학회가 끝난 참가자들은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 꽃을 피웠고 학회장에서의 딱딱한 주제는 벗어난 듯하였다. 모두들 학회를 준비하면서 고생하였고, 발표는 잘 끝났고, 이번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그런 즐거운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학회가 끝나고 돌아와서 생각했던 것은 평소 뵈기도 어려운 훌륭한 교수님들을 앞에 두고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 한 수 배우거나, 여러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것 같아 무척이나 아쉬웠다는 것이다. 또한 학회 내내 보여준 세계각국 여러 학자들의 높은 지적 욕구에 도전 의식이 느껴졌다. 유태인들의 교육서에 보면 '배움을 중단하면 20년 걸려 배운 것을 2년 안에 잃게 된다'고 하였다. 평생 배우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된다는 것이다. 이번 학회는 일에 지쳐 사막 같이 느껴졌던 나의 일상에 '배움은 꿀처럼 달다'는 분명한 청사진을 남겨 주었고, 늘 배우는 자세로 노력하고 있다면 새로운 학문적인 성취는 나에게 더 이상 사막의 신기루가 아닐 것 같다는 희망을 안겨 주었다.

Gynecologic Oncology Group

79th Semi-Annual Meeting **참관기**



장소 : Baltimore Marriott Waterfront, Inner harbor, Baltimore, Maryland

일시 : 2009. 7. 15 ~ 2009. 7. 19

원자력의학원 산부인과 김기동

GOG meeting에 다녀 온 참관기를 쓰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했다. 처음에는 GOG meeting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meeting에서 새롭게 결정되거나, 발표된 사항을 정리하여 알리는 방식으로 쓰려고 했다. 그러나, GOG meeting은 여러 session이 동시에 진행되는 형식이었고, 내가 모든 session에 참석한 것도 아니었으며, 또한 참석한 session에서도 짧은 영어로 많은 논의를 놓치기 일쑤였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GOG meeting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 너무 딱딱하게 쓸 필요 없잖아?’ ‘그냥 솔직하게 느낀 점을 쓰는게 어때?’ 결국, GOG meeting에 처음 참석한 신출내기 개인의 개인적인 감상을 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너무 개인적인 글이 돼버린 느낌도 있지만, 읽으시는 분들의 양해를 바란다.

출발 전

내가 Baltimore에서 열리는 GOG meeting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은 5월경이었다. 중앙대학교의료원에서 열린 산부인과내시경 학회에서 유상영 선생님과 점심을 먹을 때였다. “올해 어떤 학회에 가는 게 좋을까요?” “뭔가 배울 수 있는 학회에 가야지. 이번에 GOG를 가는 것도 좋아.” 1달쯤 후, 학회장장에서 강순범 선생님을 뵈게 되었다. “선생님, 이번에 저도 Baltimore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래? 가서 많이 보라고. 배워야 돼. 가서 보면, 보는 게 달라진다고.” ‘정말 보는 게 달라질까?’ 기대 반 의심 반으로 7월 15일 Baltimore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Cancer workshop

GOG meeting은 수많은 교육강연과 실무회의, 위원회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각 암종에 대한 workshop이 기억에 남는다. 나는 주로 자궁경부암 workshop에 참석하였다. 커다란 홀에 해당 암종에 대한 운영위원들이 앉은 책상이 동글게 배열되어 있었고, 그 옆으로 토의 과정을 참관하는 사람들이 앉도록 좌석이 배열되어 있었다. 자궁경부암 workshop의 경우 한국에도 몇 번 왔었던 Dr. Bradley J. Monk와 Dr. Wui-Jin Koh가 진행을 맡았다. 운영위원들은 주로 미국의 GOG 회원 병원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다. 현재 GOG에서 진행중인 임상시험에 대한 소개, 종료된 임상시험의 결과 발표, 시작 예정인 임상시험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다른 임상시험 group 들과의 협력 상황, 주요 회의의 결과들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17일 workshop에서는 원자력의학원 유상영 선생님이 주관연구자로 되어 있는 CVM 0801/KGOG 1008에 대한 소개가 있어서, 유상영 선생님이 운영위원들에게 protocol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있었다.



농담까지 섞여있는 그들의 영어를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컴퓨터 화면의 도움을 받아 대략적인 내용은 이해할 수 있었다. 인상적인 점이라고 할지, 느낀 점이라고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우선, ‘그들도 사람이다’ 라는 점이다. GOG 0218 등 GOG에서 나온 protocol을 처음 보았을 때, 그 두께에 가슴이 답답했던 기억이 있다. 아마도, 마음 속 한 귀퉁이에서는 ‘GOG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내가 하는 일보다 차원이 높고, GOG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내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GOG workshop에서 본 운영 위원들은 우리와 좀 다르게 생기는 했지만 (외국인들이었으니 당연한 일이다), 그냥 ‘사람’ 이었다. 토의는 상식적인 선에서 진행되었고, 과내에서 집담회 시간에 하는 토의와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

또, 인상적이었던 것은 토의 중에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 감정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점이였다. 논의가 군더더기 없이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빠르게 진행된 점, 그 결과로 예정된 시간에 항상 논의를 끝내는 점도 인상적이였다.

또한, 개인적인 느낌이긴 한데, 어떤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할 때 기존 임상시험의 결과뿐만 아니라 연구자 개개인의 경험이나 견해를 중시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새로운 protocol에 대한 찬반 토론이 있었는데, 토론자들이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존의 근거에 반하더라도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였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 ‘근거중심의학’ 이라는 말을 최근 워낙 많이 듣다 보니, GOG에서는 모든 의사결정이 근거에 의거하여 기계적으로 내려질 것이라는 ‘착각’ 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근거중심의학’ 의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임상시험 group인 GOG meeting에서 본 그들은 임상시험이 가진 장점과 함께 그 한계에 대해서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보여서 기억에 남는다.

KGOG meeting

7월 17일에는 KGOG에서 주관하는 KGOG meeting이 별도의 session으로 열렸다. 진행성 내막암에서 동시화학방사선요법의 유용성을 알아보는 GOG 0258과 재발성 난소암에서 2차 중앙감축술과 bevacizumab을 추가한 항암화학요법의 유용성을 보는 GOG 0213에 대해 주관연구자 측에서 나와 protocol에 대해 설명하고 KGOG 측과 의견을 나누었으며, 해당 protocol에 대해 KGOG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또, 원자력의학원의 유상영 선생님이 조만간 환자등록이 시작될 예정인 CVM 0801/KGOG 1008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주관연구자가 해당 임상시험의 성공을 위해 개개 임상시험 group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향후 KGOG의 위상이 더 높아진다면, 더 많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설명하고 KGOG에 협조를 요청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 나아가, protocol의 개발 단계부터 KGOG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기가 오기를 기대한다.

Educational sessions

7월 16일에는 “Controversies and Opportunities in Ovarian Cancer in a Post-GOG 218 World”라는 제목으로 symposium이 있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neoadjuvant chemotherapy, intraperitoneal chemotherapy, dose dense paclitaxel에 대한 발표와 bevacizumab을 비롯하여 anti-angiogenic agents에 대한 강의, 여러 target agents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오후에는 “Clinical Application of Genomic Medicine in Ovarian Cancer”라는 주제로 scientific session이 있었다. Scientific session에서는 난소암과 관련된 SNP와 pharmacogenomics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모두 유료 session이라서 나는 처음부터 다 듣지는 못하고, 중간부터 들었는데, 흥미롭긴 하였지만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았다. Target agents를 사용한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련 연구를 하고 있었다면 좀 더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Food and alcohol

볼티모어는 게(crab)로 유명한 곳이다. 도착한 날 저녁에 blue crab으로 유명하다는 식당을 갔는데, 기대와 달리 crab이 파랑지는 않았다. 식당에 가 앉으니, waiter가 와서 망치와 칼을 사용하여 게를 dissection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횡집에 가면 전지를 식탁에 까는 것처럼 식탁에 전지를 여러겹으로 깔아주었다. 그러더니, 웨이터가 쟁반에다 crab을 가져와서 종이 위에다 수북히 쏟아놓고 먹으라고 했는데, 언뜻 보니 게에 모래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여기는 거의 원시시대군... 고기잡이 나가서 잡아온 게를 모두 돌려앉아 하나씩 생으로 까 먹는 건가? 그래도, 모래는 좀 씻어내고 먹지...’ 나중에 알고 보니, 게에 묻어 있던 것은 모래가 아니고 후추와 소금 양념이었다. 열심히 게살도 파먹고, 또 미국드라마에서만 보던 crab cake도 먹어 보았다. 맛은 글썄... 게맛뽕? 이라고 할까? 개인적으로는 blue crab보다 신사동 간장게장이 더 맛있는 것 같다.

KGOG meeting이 있던 날 저녁에는 GOG 본부에서 일하는 여러 staff 분들을 모시고, 한국식 고기집에서 party를 했다. 나는 Statistical and Data Center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는데, 우려했던 바와 달리 다들 유쾌한 분들이라 한국에서 마시듯이 폭탄주를 돌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Sex and City의 Cathy와 닮았던 Michael, 옆집 아저씨처럼 편안하게 생겼지만, workshop에선 날카로운 발언을 쏟아내던 Shamshad, 또,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한국식 폭탄주를 좋아하던 biostatistician 한분이 기억에 남는다.

맺음말

GOG에서 시행하는 임상시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된 상태에서 meeting에 참여하였다면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해야 할 일도 많다는 것을 느끼게 한 meeting이었다.

100th 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AACR) Meeting in 2009 **참관기**



중앙의대 산부인과 이은주

AACR 학회는 cancer researcher들의 축제의 공간이다. 전 세계에서 온 수 백 명의 invited speaker들과 5,800여개의 presentation들이 넓은 convention center 구석구석을 가득 메우고 있어 마치 knowledge shower가 쏟아져 지식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듯하다. 이렇듯 방대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좋은 강의들을 놓치거나 허둥지둥 시간만 낭비되기 십상이고, 워낙에 넓어서 체력적으로도 지칠 수 있다. 따라서 꼭 들어야 할 강의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내가 얻어 가야할 주제, 강의 시간 뿐 아니라 이동 거리를 꼭 체크해야만 한다. 또한 몰려다니는 것 보다 혼자 다니는 것이 훨씬 편하고 유리하다. 이것들은 모두 옛 지도교수였던 Dr. Wei Zhang에게 배운 것들이다. AACR 학회장에 서면 늘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한 손에는 책 들고 가방 메고, 다른 손에는 food 봉투 들고 뛰어 가는 사람들, 삼삼 오오 모여서 coffee 마시는 사람들, 카펫에 앉아서 책보는 사람들 등... 늘 역동적이고 빛나는 눈빛을 한 젊은 과학자들로 열정이 넘쳐난다. 나도 덩달아, 마음이 벅차고 발걸음이 빨라지게 된다.

우연히 미국 MD Anderson Cancer Center에서 함께 공부했던 핀란드인 Christine와 같은 호텔에 묵게 되어서 이 팀과 매일 호텔 아침식사에서 만나서 함께 학회에 출근했다. Christine 역시 Wei에게서 배운 원칙을 지키고 있었다. 따라서 학회장에 도착하면 각자 흩어져 전날 밤 체크한 스케줄대로 분주히 움직였다.

나는 이번에 DNA methylation에 관한 연구를 새롭게 시작한 셈이어서, DNA methylation microarray에 관한 것 (실은 collaboration해서 공짜로 좀 해 볼 수 없을까 하는 마음이 지배적이었다.)과, Pyrosequencing data를 임상적 연관성 연구에 적용하기 위한 접근 방법 및 통계처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Epigenomics를 주제로 하는 학회에서 하면 될 것이었지만, 굳이 AACR를 고집한 것은, Basic and Clinical research 모두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AACR에서 주로 귀담아 들었던 것은, targeted therapy, molecular markers 그리고 화려한 green and red fluorescence를 내는 동물들 및 live

imaging system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personalized medicine, tailored therapy라는 말이 나를 더 주목하게 한 것은 내가 이제는 이미 임상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 듯 했다. 매일 plenary session은 2개씩만 골라 들었는데, molecule에서부터 개체를 넘나드는 엄청난 데이터 내지는 굵직하고 지극히 원론적인 것들에 대한 창의적인 연구에 감탄을 받고 이러한 것들이 세상을 이끄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바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언제쯤 저런 감동적인 연구를 해볼 수 있을까? 나머지 시간은 주로 body fluid에서의 DNA 추출에 관한 것과 DNA methylation 이라고 붙은 제목은 죄다 찾아서 포스터를 훑어 갔다. 실제로 내가 포스터를 더 많이 찾아다니는 이유는 bench work에 대한 경험이 내게는 가장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이었다. 대부분 직접 실험을 한 연구자가 포스터 앞에 서있게 되기 때문에 잘만 하면 크고 작은 knowhow를 담아 갈 수 있다.

AACR에 참석하는 또 하나의 기쁨은 옛 동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Post-doctoral fellow 시절 함께 밤샘하던 동료들이 이제는 자국에서 각자 사회의 중심에서 일하고 있어서 뿌듯하고, 해마다 몸이 중년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놀리는 재미도 솔솔하다. 그리고 예전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 지도교수였던 Dr. Wei Zhang이 온다고 하여 이미 이메일을 통해 저녁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기대도 컸다. Colorado spring에 있는 어느 피자집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학회시작 며칠 전에 많은 눈이 내려서 산위로 올라가는 Cograil이라는 기차가 끝까지 못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10여명의 동료들과 옛날 기억들을 떠올리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 돌아오는 비행기안에서 닳고 해진 학회책을 떠들어 보며, 메모해 놓은 정보나 사람들 이메일 등을 조그만한 수첩에 기록하여 정리함으로써 AACR 학회일정을 마쳤다. AACR 학회는 나의 몸은 지치게 하였지만, 저장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으며, 방법의 knowhow들을 챙길 수 있는 알뜰시장과 같았다.

2009 제8차 대한부인종양연구회 심포지엄 및 워크숍

2009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제24차 학술대회 참관기



계명대 산부인과 권상훈

먼저 40년 넘게 대구에서만 살아온 필자에게 대구에서 열린 제8차 대한부인종양연구회 심포지엄 및 워크숍(2009년 4월 16일)과 제24차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학술대회(2009년 4월 17일)에 대한 참관기를 쓰게 되게 여간 쑥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에서 열렸던 전 해에는 그래도 비행기라도 한 번 타고, 호텔에서 이틀이라도 숙박하고 돌아오면 학회 참석한 기분이라도 들곤 했는데 이번 학회는 필자의 고향인 대구에서 개최하여 그런 기분을 낼 수 없어서 못내 아쉬웠던 것 같다. 이번 심포지엄과 학술대회가 열린 곳은 대구 유일의 특급 호텔인 호텔인터볼고에서 열렸다. 참고로 “인터볼고(INTER-BURGO)”는 스페인어에 그 어원을 두고 있으며 “모두의 마음과 뜻을 함께하는 화목한 마을”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호텔인터볼고는 대구의 관문인 금호강변 망우공원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적당한 크기의 컨벤션홀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간 대구에서 열리는 국·내외 많은 학회와 국제행사를 치러왔던 곳이다.

2009년 4월 16일 대한부인종양연구회 심포지엄 및 워크숍은 오전 9시부터 서울대학교병원 강순범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

후 5시까지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이미 간행된 3가지 임상시험인 KGOG2003 (계명대 조치흠), KGOG2004 (보라매병원 이택상), KGOG3003 (원자력의학원 유상영)에 대한 간단한 발표를 하였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첫 좌장을 저희 계명대 차순도 선생님으로, 첫 연자를 계명대 조치흠 선생으로 그리고 오후 international protocol의 마지막 연자를 계명대 권상훈(필자)으로 정하여 대구에서 개최하는 의미를 살려주신 회장님 및 학술대회 준비위원님께 감사드린다.

이어서는 초청된 미국 MD Anderson Cancer Center에 Anil K. Sood와 태국 Mahidol 대학에 있는 SariKapan Wilailak의 특별 강연이 암의 target therapy에 대한 독성에 대한 내용과 태국 부인암의 epidemiologic report를 간략하게 발표하였다. 부인암에 이제 적용하고 있는 target therapy의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라 집중하여 들었던 것 같다.

이어서 2009년 1월 23일, 24일 미국의 Garden Grove, CA에서 열렸던 제78차 GOG semiannual meeting에 참석하고 온 분들이 cervix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권용일), ovary (삼성의료원 김병



기), endometrium committee (서울아산병원 김종혁)에서 논의된 내용의 소개가 있어서 간접적으로나마 최근에 논의된 내용을 습득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후 간단한 점심식사와 잠시의 휴식후 오후 1시부터는 진행중인 KGOG protocol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먼저 원자력의학원 유상영 선생이 발표한 내용인 “Randomized clinical trial for adjuvant chemoradiation in postoperative cervical cancer patients with intermediate risk factors”와 강남 차병원 성석주 선생이 발표한 내용인 “Management of endometrial hyperplasia with lenorgestrel releasing intrauterine system: prospective multicenter study”는 흥미로웠다.

교육강연으로 마련된 session에서는 국립암센터 남병호 선생이 임상실험에서의 통계분석을, 보라매병원 이택상 선생이 최근 version인 RECIST version 1.1을 설명해 주었는데 역시 통계는 어려웠다(^). 오후 3시부터 마지막 session인 international protocol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GOG218, GOG213, AGO-OVAR16/VEG10655, 마지막으로 필자가 발표한 S-1 study였는데 앞 연자에게 미안하지만 발표를 위해 preview room에 있어서 좀 미안하고 아쉬웠다. 제8차 부인종양연구회 심포지엄 및 워크숍은 많은 최근 지식을 필자에게 제공하고 끝이 났다. 저녁시간은 대부분 대학별로 식사를 하셔서 식사이후의 시간에 잠시나마 개인적으로 안면이 있던 몇 분들(성심병원 권용일 선생, 고대 이낙우 선생...그리고 후배님들)과 가볍게(?) 술자리를 하며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2009년 4월 17일 열린 제24차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학술대회는 오전에 Plenary session을 마련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한 것과 작년에 이어 재미있으면서도 상품까지 있는 tumor board를 진행한 것이 특징이었다. 기억나기로는 tumor board에서 상품을 탄 분은 공요롭게도 대구 영남의대 선생이었던 것 같다. 오전 session을 살펴보면 Anil Sood의 “Angiogenesis and tumor microenvironment in Gynecologic malignancies”와 “Molecular targeted chemotherapy”에 대한 발표와 지명토론이 있었고 이어서 성균관의대 김병기 선생의 “Optimization for maintenance/consolidation therapy in ovarian cancer”와 국립암센터 박상윤 선생의 “Neoadjuvant chemotherapy in advanced ovarian cancer”에 대한 강의와 지명토론이 있었다. 필자 개인적으로도 치료시 항상 고민되는 진행된 난소암에 대한 주제여서 관심있게 들었다. 오전 마지막 session으로 6주제의 plenary session이 진행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Robotic surgery에 대한 내용, 경계성 난소 종양의 동결절편의 유용성,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에 대한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

점심 식사는 세브란스 김재훈 선생, 강동성심의원 권용일 선생과 복어국으로 해장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로 먹음만 했던 것 같다. 오후 일반 연제의 첫 연자로 필자는 1층 카멜리아홀에서 “Survival analysis of cervical cancer treated with Concurrent chemoradiation”란 주제로 구연 발표를 하였고 감사하게도 우수 논문상으로 채택되어 저녁 만찬에서 상장까지 수여받았다. 일반 연제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계명대의 조치흠 선생과 아마 부인과 전문의 중에서는 가장 큰 키를 가진(?) 이화여대 주웅 선생의 진행으로 tumor board가 진행되었는데 주웅 선생의 wife 사진이 문제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문제가 “성형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였는데 답가지에 작고하신 전 대통령도 있었는데 문제의 답이 주웅 선생 wife라고 하자 문제를 풀던 분들이 주웅 선생에게 “혼자 착각하고 사는데 아니냐”고 소리 질렀던 재미있던 기억이 난다. 이틀간의 짧은 학회를 마치고 호텔인터볼고의 야외연회장에서 참석한 모든분들과 저녁 만찬을 개최하여 아쉬움을 달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부인종양연구회가 KGOG 강순범 회장님, 이하 여러 선배 교수님들의 노력으로 하여 회를 거듭할수록 국내 부인종양연구회가 타과의 연구회에 비해 월등한 임상 시험 결과와 치료 성적을 인정받고 있는 것을 부인종양연구회의 위원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대구에서의 제8차 대한부인종양연구회 심포지엄 및 워크숍과 제24차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학술대회에 대한 참관기를 마친다.

2010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제 25차 학술대회

일차 · 2010년 4월 30일(금) 장소 · 라마다프라자호텔 제주

08:00-08:30	등록	
08:30-08:45	Registration time	회장 · 김용우
Session 1	Special lecture	회장 · 김용우(서울대학교)
08:45-09:00	Less radical surgery in early stage cervical cancer	김영희(서울대)
09:00-09:05	Discussion	박재희(고려대)
09:05-09:30	Chemotherapy in EOC: focused on ICON trials	Jonathan Ledermann (University College London)
09:30-09:55	Molecular prognostic and predictive factors in epithelial ovarian cancer	Jonathan Ledermann (University College London)
09:55-10:00	Discussion	김영희(서울대)
10:00-10:15	Coffee break	
	Plenary sessions	회장 · Jonathan Ledermann (University College London)
10:15-10:25	Current status in the management of uterine cancer in Korea: a multi-center retrospective Korean study (FUGO)	이영진(한양대)
10:25-10:30	Discussion	김용우(서울대)
10:30-10:40	Limited benefits of neoadjuvant chemotherapy before surgery in FIGO stage III-IVA cervical cancer: A meta-analysis	김영희(서울대)
10:40-10:45	Discussion	한기영(경희대)
10:45-10:55	Matched-case comparison for the role of consolidation chemotherapy following concurrent chemoradiation in cervical cancer	최승진(연세대)
10:55-11:00	Discussion	김지영(서울대)
10:50-11:10	A phase II trial of radiation therapy with concurrent paclitaxel chemotherapy in high-risk endometrial cancer patients after staging operation: An interim analysis of a prospective multicenter trial (POGOG0001)	김지영(서울대)
11:10-11:15	Discussion	김용우(서울대)
11:15-11:25	Should para-aortic lymphadenectomy be performed in the management of preoperative grade 1 endometrial cancer confined to the corpus?	장세영(서울대)
11:25-11:30	Discussion	장세영(서울대)
11:30-11:40	Inactivation of O6-methylguanine-DNA methyltransferase (MGMT) by promoter hypermethylation - A key factor of epithelial ovarian carcinogenesis in specific histologic types	이진희(서울대)
11:40-11:45	Discussion	김영희(서울대)
	중간 Luncheon seminar	회장 · 김용우(서울대)
11:45-12:05	Efficacy and toxicity of oxaliplatin with and without cisplatin in patients with recurrent ovarian cancer	김용우(서울대)
12:05-13:05	Lunch	
13:05-14:25	Free Communications	
	Hall I	회장 · 오병현(연세대), 김용우(서울대), 김용우(서울대)
	Hall II	회장 · 김용우(고려대), 남재현(고려대), 오병현(서울대)
14:25-15:05	Coffee break	
Session 2	Fertility preservation	회장 · 오병현(연세대), 남재현(고려대)
15:05-15:20	Breast cancer in women of childbearing age	오병현(서울대)
15:20-15:25	Discussion	남재현(고려대)
15:25-15:40	Fertility preservation in patients with early cervical cancer	김용우(서울대)
15:40-15:45	Discussion	남재현(고려대)
15:45-16:00	Preservative management of endometrial cancer	김용우(서울대)
16:00-16:05	Discussion	이진희(서울대)
16:05-17:05	부인암 진료보고회 공청회	
17:05	폐 기	
18:20	우수논문발표 시상 및 만찬	





2010년 제10차 대한부인종양연구회 심포지엄 및 워크숍

날짜 · 2010년 4월 29일 (목) 장소 ·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08:50~09:00 개회사

강순범 회장 (서울대학교병원)

KGOG Symposium

Overview of KGOG Protocols

좌장: 김경태 (한양대학교병원), 김영탁 (서울아산병원)

- 09:00~09:10 **KGOG 1012** A phase II trial of adjuvant chemotherapy in patients with lymph node metastasis after radical surgery in FIGO stage IA2-IIA cervical cancer 강석범 (국립암센터)
- 09:10~09:20 **KGOG 1014** A phase III trial of paclitaxel/cisplatin versus paclitaxel/carboplatin in stage IVB, persistent, and recurrent cervical cancer 이근호 (서울성모병원)
- 09:20~09:35 **KGOG 2006** Management of endometrial hyperplasia with levonorgestrel releasing intrauterine system : prospective multicenter study 성석주 (강남차병원)
- 09:35~09:50 **KGOG 3017** A phase II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 of carboplatin and paclitaxel or carboplatin and gemcitabine in platinum-sensitive, recurrent ovarian, fallopian tube, and primary peritoneal cancer 김승철 (이대목동병원)
- 09:50~10:05 **KGOG 3019** Prospective multicenter case-control study for Korean epithelial ovarian cancer 김병기 (삼성서울병원)
- 10:05~10:30 Coffee Break

Special Lecture

좌장: 남주현 (서울아산병원), 유희석 (아주대학교병원)

- 10:30~10:50 RT0724 Phase III randomized study of concurrent chemotherapy and pelvic RT with or without adjuvant chemotherapy in high-risk patients with early-stage cervical carcinoma following radical hysterectomy Wui-Jin Koh (University of Washington)
- 10:50~10:55 Q & A
- 10:55~11:20 Overview of NCRI gynaecological cancer clinical studies group Jonathan Ledermann (University College London)
- 11:20~11:25 Q & A
- 11:25~11:45 Neoadjuvant chemotherapy in locally advanced cervical cancer: Radiation oncologist's view Wui-Jin Koh (University of Washington)
- 11:45~11:50 Q & A
- 11:50~12:15 Oncothermia from laboratory to clinical practice Andras Szasz (St. Istvan University)
- 12:15~12:20 Q & A

중의 Luncheon Symposium

좌장: 이선경 (동서신의학병원)
최석철 (원자력병원)

- 12:20~13:30 Hemodynamic and oxidative stress parameters between innovator and generic preparations of ISC
Lunch

KGOG Workshop

Overview of GCIG and Other Protocol

좌장: 최호선 (전남대병원)
김재원 (서울대학교병원)

- 13:30~13:50 Present status of GCIG trials
- 13:50~14:10 S1 Phase III study of S1 cisplatin compared with single agent cisplatin in stage IVB, recurrent or persistent carcinoma of the cervix 주 용 (이대목동병원)

Education Lecture

좌장: 김기태 (부산백병원)

- 14:10~14:30 Choice of control group and related issues in clinical trials 남병호 (국립암센터 암통계연구과)
- 14:30~14:50 Stereotactic body radiation therapy for the treatment of recurrent and metastatic gynecologic cancers 조철구 (원자력병원 방사선종양학과)
- 14:50~15:20 Coffee Break

Overview of GOG Protocols

좌장: 배덕수 (삼성서울병원)

- Cervix, Vulva, Vagina TSC**
- 15:20~15:35 **GOG 233** Utility of preoperative FDG-PET/CT scanning prior to primary chemoradiation in patients with locoregionally advanced carcinoma of the cervix or endometrium 권용일 (강동성심병원)
- 15:35~15:50 **GOG 263** A randomized phase III clinical trial of adjuvant radiation vs. chemoradiation in intermediate risk, stage I/IIA cervical cancer treated with initial radical hysterectomy and pelvic lymphadenectomy 유상영 (원자력병원)

Ovarian-Fallopian Tube TSC

좌장: 김원규 (복음병원)

- 15:50~16:05 **GOG 212** A randomized phase III trial of maintenance chemotherapy comparing 12 monthly cycles of paclitaxel or CT-2103 vs. no treatment until PD in AOC patient who achieve a complete CR to primary platinum/taxane chemotherapy 박동춘 (성병센터병원)
- 16:05~16:20 **GOG 213** A phase III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 of carboplatin & paclitaxel alone or in combination with bevacizumab followed by bevacizumab & secondary cytoreductive surgery in platinum-sensitive, recurrent ovarian cancer 정현훈 (서울대학교병원)
- 16:20~16:35 **GOG 252** A phase III clinical trial of bevacizumab with IV vs. IP chemotherapy in ovarian, fallopian tube and primary peritoneal carcinoma 이택상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 16:35~16:50 **GOG 262** A randomized phase III trial of weekly paclitaxel combined with carboplatin vs. weekly paclitaxel plus bevacizumab combined with carboplatin vs. 3-weeks paclitaxel plus bevacizumab combined with carboplatin in the treatment of epithelial ovarian cancer 조치훈 (동신의료원)

Uterine Corpus-GTT TSC

좌장: 박상운 (국립암센터)

- 16:50~17:05 **GOG 249** A phase III trial of pelvic radiation therapy vs. vaginal cuff brachytherapy followed by paclitaxel/carboplatin chemotherapy in patients with high risk, early stage endometrial carcinoma 송은섭 (인아대병원)
- 17:05~17:20 **GOG 258** A randomized phase III trial of cisplatin and tumor volume directed irradiation followed by carboplatin and paclitaxel vs. carboplatin and paclitaxel for optimally debulked, advanced endometrial carcinoma 김종혁 (서울아산병원)
- 17:20~ 폐회



대한부인종양연구회 KGOG

http://www.kgog.org Tel : 02-512-5420 Fax : 02-512-5421

FIGO 2009 참관기



울산의대 울산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주원덕

미지의 대륙 아프리카에 대한 막연한 동경에 이끌려 저는 지난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머나먼 땅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FIGO 2009 XIX World Congress of Obstetrics and Gynecology에 참석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학회에 서울아산병원에 근무하는 영상의학과 최희재 선생님, 치료방사선과 김영석 선생님 그리고 산부인과 박정열 선생님과 일정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과의 의견도 함께 나누고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팀워크를 다지기 위한 일종의 M.T.와 같은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에서였는데 다양한 분야를 포용하고 아우르는 FIGO 학회의 성격과 잘 맞아떨어져서 함께 올 수 있었습니다.

15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비행기가 인도양을 가로질러 아프리카 대륙 위를 날기 시작하자 가슴이 뛰며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열린 구름 층을 뚫고 광활한 아프리카의 대지가 창 너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평원과 간간히 보이는 동심원 모양의 농장지대 그리고 햇살이 반사되어 빛나는 호수들... 영화 Out of Africa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케이프타운은 희망봉이 있는 곳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1497년 바스코 다 가마가 이곳 희망봉을 돌아 인도항로를 개척했던 대항해시대의 역사적 장소로 오랫동안 백인들이 정착해 살아온 곳이어서 마치 유럽의 도시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곳에는 백 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케이프타운 의대가 있었는데 Chris Barnard 박사가 1967년 10월 3일 세계 최초로 심장이식수술을 성공한 곳이기도 합니다. 심장이식을 성공시킨 의료진뿐만 아니라 심장 이식을 받은 Luis Washkansky의 용기와 심장공여자인 Denise Darvall이라는 젊은 여성과 이식에 동의한 그의 아버지 Edward Darvall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박물관이 병원 옆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FIGO 학회장은 산부인과와의 국제연합(the United Nations, U.N.)이라는 느낌을 주었는데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마치 인종 전시장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여러 이슈들 중에서도 특히 올해 개정된 FIGO staging of gynaecologic malignancies가 주목을 끌었는데, 개정에 참여한 핵심 인사들을 general assembly에서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IGCS 회장을 역임하셨고 FIGO Committee on Gynecologic Oncology의 chairperson이

신 Sergio Pecorelli께서 좌장을 맡으셨고 uterine sarcoma는 ISGyP (International Society of Gynecological Pathologist)의 Jaime Prat 회장님께서, vulvar cancer는 FIGO Committee on Gynecologic Oncology의 past chairperson이신 Neville Hacker께서, cervical cancer는 개최국인 남아공의 Lynette Denny께서 그리고 endometrial cancer는 SGO의 David Mutch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 여성의 건강에 대한 선언적인 발표들이 이어졌는데 특히 'FIGO global guidance for cervical cancer prevention and control'를 발표하면서 FIGO 차원에서 자궁경부암 퇴치를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figo.org/files/figo-corp/FIGO%20Cervical%20Cancer%20Guidance_Final.pdf로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8년 노벨의학상 수상자이신 Harald zur Hausen께서도 이번 학회에 참석하셔서 HPV 백신과 새로운 조기 선별검사 및 치료방법이 개발도상국 여성들에게도 사용 가능하게 될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차기 회장단이 선출되었는데 Professor Sir Sabaratnam Arulkumaran이 President-Elect로, Professor Takeshi Maruo가 Vice-President로 선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는데 한림의대 권용일 교수님께서 oral presentation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 테이블마운틴 정상에서, 20시간이 넘는 비행으로 수염이 텃수룩하게 자랐다. 멀리 보이는 섬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27년간 옥박혀 감옥이 있는 Robben 섬.

의 좌장을 맡으시고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의 video presentation 도 해주셨고 연세의대 김영태 교수님께서 'Years from Menopause to Surgery Is a Major Determinant of Postoperative Symptomatic Improvement in Postmenopausal Pelvic Organ Prolapse' 를 구연발표하셨습니다. 또한 울산의대 남주현 교수님께서 'Comparison of Laparoscopic Radical Hysterectomy and Abdominal Radical Hysterectomy for Stage IA2-IIA Cervical Cancer: A Matched Case-control Study' 를, 국립암 센터의 강석범 선생님이 'Does Neoadjuvant Chemotherapy Increase Optimal Cytoreduction Rate in Advanced Ovarian Cancer? Meta-Analysis of 21 Studies' 를 구연발표하셨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백인과 흑인 그리고 혼혈인 '컬러' 로 구분되는데 거주지와 생활수준이 피부빛깔만큼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백인은 고급주택에, 컬러는 보통 벽돌집에, 그리고 흑인은 판자집에 살고 있고 거주지역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와 같은 인종차별은 없지만 극복할 수 없는 벽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영어와 더불어 'Africans' 라는 독특한 언어가 이곳의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독일어와 비슷하기도 하고 영국의 식민지가 되기 전 오랫동안 이곳을 지배해오던 네덜란드어의 아프리카식 방언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이 곳 사람들(백인)은 매우 가정적이고 여유를 즐기며 사는 것 같았습니다. 8시 출근 4시 퇴근인데 출근시간에는 길이 많이 막혀도 서두르지 않고 여유를 부리지만 퇴근시간이 되면 집을 향해 과속으로 돌진(?)하는 차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집에 6시까지 도착하지 못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개 저녁때 집에서 파티를 하거나 석양을 즐기면서 와인을 마시는 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들인지라 시내에 밤늦게 영업하는 술집도 없고 화려한 밤문화도 없었습니다.

이 곳은 와인 생산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산등성이 아래로 넓은 포도밭이 펼쳐져 있었는데 아프리카이지만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와 비슷하고 비옥한 땅과 온화한 기후 덕택에 포도 재배가 잘 된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마시던 와인을 생산하였던 Groot Constantia라는 와인농장을 방문하여 시음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저는 와인을 잘 아는 편은 아니지만 red wine 중에서는 평소 한국에서 많이 접해본 Cabernet Sauvignon이나 Melot보다는 Shiraz라는 포도 품종의 와인이 훌륭했고 해물요리와 곁들여 맛본 Sauvignon Blanc이라는 포도 품종의 white wine은 평소 먹던 Riesling보다 더 깔끔한 것 같았습니다. 또한 Amarula라는 디저트 와인은 marula라는 이곳에서 나는 열매를 넣어 만든 와인으로 초콜릿처럼 매우 달콤하지만 알코올 도수가 매우 높아서 우스개 소리로 바람둥이 남자가 아가씨를 유혹할 때 소위 '작업용' 으로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1주일간 이곳에 머무르면서 맑은 공기와 깨끗한 자연, 그리고 신선한 음식들을 섭취해서인지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렬한 햇살 덕택에 얼굴이 좀 많이 그을려 귀국 후 병원에서 햇빛 못보고 고생하는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ESGO에 다녀오신 선생님들께서 동유럽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 고생하셨다며 부러워하셨습니다. 케이프타운은 언젠가 한 번쯤 살고 싶은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포도농장

ESGO 2009 참관기



부산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송용중

European Society of Gynaecological Oncology (ESGO) Biennial Meeting이 지난 2009년 10월 11일 ~ 14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렸다. ESGO는 부인암의 연구, 예방, 치료를 목적으로 1983년 이탈리아의 베니스에서 출범하여 현재 유럽 30여개 국가가 가입된 학회다. 2년에 한번 학회가 열리며, International Gynecologic Cancer Society (IGCS)와 함께 International Journal of Gynecologic Cancer (IJGC)라는 SCI저널을 출간하고 있다.

세르비아 베오그라드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떠난 지 약 6시간 후 경유지인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하였다. Transit time이 4시간으로 약간 지루하였지만 공항 구경하면서 간단한 샌드위치로 요기를 하고 세르비아행 비행기로 갈아탄지 2시간 후 베오그라드 Nikola Tesla 공항에 현지 시각 밤 11시 30분에 도착하였다. Nikola Tesla는 교류 및 자기장의 원리를 찾아낸 세르비아의 위대한 과학자로 MRI에서 쓰이는 자기장의 단위도 Tesla로 표시하며, 현지에서는 에디슨보다 더 뛰어난 과학자로 존경한다고 한다. 차의과대학 황윤영 학회장님, 이찬 교수님, 건국대 이효표 교수님, 원자력의학원 이의돈 교수님, 가천의대 박찬용 교수님, 경북대 이운순 교수님, 성균관대 김병기 교수님, 고려대 이낙우 교수님, 전남대 김석모 교수님, 이대 문혜성 교수님, 계명대 권상훈 교수님, 저희 병원 서상수 교수님 등 일행과 함께 숙소인 Inn hotel에 밤 12시에 도착하여 시차를 느낄 틈 없이 침대에 눕자마자 정신없이 숙면을 취하였다. 다음날 일요일에는 간단한 시내 관광을 하였다. 구 유고 연방은 티토 사망 이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

스니아, 헤르체고비아, 코소보 등으로 순차적으로 내전 및 독립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역사적, 종교적, 인종적 배경이 너무 복잡하여 현지 가이드의 설명만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았다. 시내에는 과거 유고연방 내전 당시 폭격을 맞은 정부 건물이 복구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베오그라드의 가장 오래된 역사 유적지면서, 그리스-로마 시대, 오스만 투르크 시대를 거치면서 군사 요새지이기도 한 Kalemegdan을 돌아본 후 Mihailovic 거리를 관광한 후 베오그라드에서 가장 오래 보존된 레스토랑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일정 내내 비가 계속 오는데 우산이 없어서 제대로 둘러보지도 못하고 세르비아에서의 하루가 지나갔다.

다음날 아침 호텔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학회장인 Sava Congress Center에 도착하였다. 오전에는 주로 구연발표가 오후에는 lecture 위주의 프로그램이었다. 첫째날 네덜란드 그룹의 endometrial



ESGO2009_세르비아국회 앞에서

cancer에서 pelvic lymphadenectomy의 QOL에 대한 long-term population-based study 발표가 관심이 갔는데 early endometrial cancer에서 systemic pelvic lymphadenectomy vs no lymphadenectomy 비교 연구인 Panici의 2008 JNCI, 2009 Lancet의 ASTEC trial 모두 두 군간에 생존율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이후 유럽에서는 early endometrial cancer에서의 lymphadenectomy의 role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또 한가지 특이한 점으로 프랑스의 Querleu가 2007년 2월 교토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adical hysterectomy에서 논의되어 2008년 lancet oncology에 발표한 새로운 classification을 발표자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였다. Advanced ovarian cancer에서 lymphadenectomy의 role에 대해서도 debate가 있는 분야인데 du Bois가 AGO-OVAR / GINECO (3, 5, 7) 분석에서 intraperitoneal disease가 complete debulking 된 환자에서 생존율 향상을 보고하고, 향후 LION trial이 종료되면 좀더 명확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화요일 구연발표 중 인상 깊었던 발표는 HPV therapeutic vaccine에 관한 것이였다. 네덜란드의 Kenter가 HPV 16-induced VIN III lesion에 대해 therapeutic peptide vaccine에 대한 연구로 phase I 결과를 2008년 Clinical Cancer Research에 게재하고, Phase II의 결과가 NEJM에 최종 accept 되었다고 발표하여 참석자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제일병원 임경택 교수님, 경희대 김용만 교수님, 원자력의학원 최석철 교수님, 서울대 김용범 교수님 등 다른 한국팀의 일정상 화요일 밤 Korean Night를 북경반점(베오그라드 유일의 중식당)에서 초출하게 가지게 되었다. 이곳 현지의 음식이 대부분 짜긴 하지만 에피타이저로 처음 나온 초두부탕이 너무 시큼하고, 짜서 여러 사람의 원성을(?) 자아 냈지만, 나머지 음식은 계속된 느끼한 음식에 지친 위장을 달래 줄만 했다. 학회 마지막 날인 수요일 노벨상



수상자인 Zur Hausen 교수의 key note lecture를 듣고 싶었으나 오후 3시 35분의 맨 마지막 시간에 하는 바람에 아쉽게 듣지 못하였다. 다음날 프랑크푸르트 가는 비행기에서 비즈니스석에 있는 Zur Hausen 교수의 실물을 볼 수 있어 아쉬움을 대신 하였다. 오후에는 잠을 내어 티토 기념관과 세계 최대의 orthodox church로 아직도 건축 중에 있는 Saint Sava교회를 둘러 보았다. 로마 카톨릭 성당에서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지만, 높은 천장까지 설치된 공사용 비계와 인부, 소음 등 좀 산만한 분위기였다.

학회 일정 내내 비가 계속 오더니 출발에 때맞춰 날씨가 거짓말 같이 맑아져 아쉬움을 뒤로한 채 돌아오는 인천행 비행기에서 느끼는 감회는 남달랐다. 한국 부인종양학회의 부인암에 대한 치료 성적과 임상 시험의 결과들이 유럽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부인종양학회 황윤영 회장님, KGOG 강순범 회장님 이하 여러 교수님들의 공로가 아닌가 한다. 분주한 병원 생활을 잠시 벗어나 세계 부인암 연구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병원 및 박상윤 교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APAGE 2009 참관기



청주성모병원 산부인과 김재준

가을이 깊어가는 무렵, 분주한 일상을 접어두고 2009년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열린 APAGE annual congress에 참석하였다. 올해에는 Most hot stuff, Ultimate Advanced Minimally Invasive Therapy라는 주제로 대만의 중심 도시, 타이베이에서 개최되었다. 서울에서 두 시간 가량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곳은 대만의 타이베이 국제공항이었다. 학회의 주제처럼, 대만은 10월달이 않게 정말 덥고 습한 날씨를 자랑하고 있었다. 가을에도 이 정도 날씨라면 여름에는 어떨지 상상이 잘 가지 않았다. 차로 약 두 시간을 더 가니 학회 장소인 타이베이 타이베이 호텔이 나타난다. 타이베이는 대만의 중부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는 약 100만명 정도이고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타이페이는 서울, 타이베이는 대전, 카오슝은 부산이라고 보면 된다고 한다. 학회장소인 Evergreen Laurel Hotel에 여장을 풀고 창을 열어보니, 건너편 사람의 표정까지 보일 정도로 일반 주택들이 너무 가까이 있었지만, 대만 나름대로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도시 경관이었다. 우리가 도착한 16일 저녁에는 학회에 참석한 분들을 환영하는 리셉션이 열렸다. 대만 타이베이 지역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고전 악단과 고적대 등의 공연이 펼쳐졌는데, 대만 사람들의 전통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주요 학회 일정은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이었으며, 마지막 19일 오전에는 Tele-surgery 강의가 있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3개의 강의실에서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매우 빡빡한 일정으로 짜여 있어서, 과연 몇 명의 사람이나 아침 7시부터 나와 강의를 들을까 생각했으나 대부분의 강의실이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반이상 차는 것을 보고 현지의 높은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주로 초청연자들의 강의를 주를 이루었는데 그 중에서 아산병원의 남주현 교수님, 김종혁 교수님, 삼성병원의 배덕수 교수님, 그리고 중앙대학교병원의 김동호 교수님께서 초청연자로 강의를 하시어,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복강경 수술분야의 중심에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특히 아산병원의 남주현 교수님과 김종혁 교수님 강의시간에는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몰려들고 저마다 카메라와 캠코더를 들고 교수님들의 강의내용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고 아산병원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 그 외에도 Kiel 대학의 Dr Lilo Mettler, AAGL 부회

장인 Dr Franklin Loffer, Laparoscopic radical hysterectomy의 창시자인 Dr Spirtos 등 세계 유수의 laparoscopist의 강의들도 준비되어 있어서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Oral presentation과 video presentation에서 흥미를 끄는 점은 1 port surgery에 대한 발표가 아주 많았다는 점이다. 작년 2008 APAGE 대구에서는 Robotic surgery에 대한 발표가 많았던 점을 생각한다면, 그와 가장 상반되는 1 port surgery가 올해 가장 이슈가 된 건 아주 특이하다고 생각되었다. LAVH, Subtotal hysterectomy, adnexal surgery 등 다양한 부인과 양성질환에 대한 초기 경험에 대한 보고들이었고, 모두 기존의 수술 방법에 비해 비슷한 수술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Single port surgery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2010 APAGE에서는 single port surgery가 4가지 대 주제 중에 하나의 주제로 채택되어 있었다.

18일 저녁에는 많은 공연이 함께한 Gala dinner가 있었다. 학회가 열렸던 호텔 근처의 다른 호텔에서 진행되었는데 버스로 이동하였다. 다양한 공연 행사가 마련되었는데 뇌쇄적인 벨리 댄서의 화려한 춤으로 시작된 공연은 만찬의 입맛을 돋우기에 충분했다. 이어서 큰 체구의 중년 여가수가 나와 신나는 노래를 시작했다. 주로 귀에 익숙한 old pop들로 이루어진 레퍼토리는 만찬에 모인 아시아 태평양인들의 자연스레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었고 특히나 마지막 곡이었던 'Can't take my eyes off you'는 깊어가는





가을밤에 운치와 내년에 싱가포르에서의 만남을 기약하는 설렘도 주었다. 맛있고 푸짐한 식사와 타국의 여러 인사들과의 아쉬운 자리를 뒤로한 채 '한국인의 밤' 모임을 하기로 한 근처 한식당으로 이동하였다. 일정 동안에 입에 맞지 않았던 대만 음식을 먹다가 김치, 부침개 등 한국 음식을 보니 반가웠다. 삼성병원에서 오신 세분의 선생님들과, 고려대학교병원, 차병원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총 11명의 선생님들이 참가하였다.

일정 마지막 날 아침 아산병원 일행은 아침 일찍 식사를 마치고 타이중의 명소라는 자연 박물관을 방문하여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마지막 공식일정인 폐회식은 간소하고 짧게 이루어졌고 은근히 상을 기대했던 시상식이 열리지 않아 다소 아쉬웠다.

이번 2009 APAGE를 참관하면서 우리나라 복강경 및 최소 침습술 분야에서 중심적인 위치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다.

Online Submission

JGO -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

<http://mc.manuscriptcentral.com/jgo>

You can now submit your paper online to JGO-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 via the online submission and editorial system from Manuscript Central. It is fast, efficient and provides step-by-step instructions on how to submit your paper.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

Log In | Create Account | Get Help Now

scholarONE
Manuscript Central

Log In

site under configuration.

We have detected that you have pop-up blocking software activated on your computer. Some pop-up blockers may prevent peer-review related e-mails from popping up to be sent. To avoid any potential issues with Manuscript Central, we recommend that you disable this softwar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Manuscript Central Support or click [here](#).

Log In This site is in a testing period. It is not open for submissions. All manuscripts will be deleted at the end of the testing period.

Welcome to the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 manuscript submission site. To Log In, enter your User ID and Password into the boxes below, then click "Log In." If you are unsure about whether or not you have an account, or have forgotten your password, enter your e-mail address into the "Password Help" section below. If you do not have an account, click on the "Create Account" link above.

Log In

Log in here if you are already a registered user.

User ID:

Password:

Password Help. Enter your e-mail address to receive an e-mail with your account information.

E-Mail Address:

New User?

[Register here](#)

Resources

- Instructions & Forms
- User Tutorials
- System Announcements
- Home Page

Manuscript Central™ v4.10 (patent #7,257,767 and #7,263,655). ScholarOne, Inc., 2007. All Rights Reserved.
Manuscript Central is a trademark of ScholarOne, Inc. ScholarOne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ScholarOne, Inc.
[Terms and Conditions of Use](#) - [ScholarOne Privacy Policy](#)

2010 GOG (Gynecologic Oncology Group) 80th Semi-Annual Meeting 참석기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임상강사 김 윤 환

Gynecologic Oncology Group (GOG)의 80차 Semi-Annual Meeting이 2010년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미팅에는 KGOG 회장인 서울의대 강순범 선생님 (이하 호칭 생략), 한양의대 김경태, 울산의대 남주현, 김용만, 김종혁, 가톨릭의대 안응식, 국립암센터 박상윤, 계명의대 조치흠, 서울의대 김재원, 원자력병원 유상영, 김문홍, 이화여대 주웅, 그리고 KGOG 연구간호사인 김선희, 아산병원 김은자, 노주희, 원자력병원 이희숙 간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GOG는 미국 National Cancer Institute (NCI)의 후원을 받는 비영리 부인암 연구단체로, 부인암에 대한 치료와 예방에 대한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1970년 미국 내 11개 병원의 부인암 전문의가 모여 결성한 단체입니다. GOG는 다기관 공동 임상연구와 각 전문분야 협력연구를 통해 매년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까지 300여 개의 임상시험을 완료하였고 5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연구단체입니다. GOG는 현재 50여 개의 임상센터와 160여 개 이상의 협력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3300명 이상의 환자들이 GOG 프로토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양권에서는 일본 JGOG와 한국 KGOG가 GOG에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GOG 미팅에 부인종양을 전공하고 있는 한 젊은 의학도로서 그들의 활동상황을 참관하고 국내 여러 선생님들과 동행하며 훌륭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참으로 행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샌디에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서부에 있는 인구 130만 명의 도시로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선선한 지중해성 기후를 갖는 미국 굴지의 관광지며 휴양도시입니다. 올해 유난히 추웠던 한국의 겨울날씨 때문인지 샌디에고의 날씨는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에는 도착한 선생님들과 함께 한국음식점에서 고국의 음식을 나누며 쉽게 여독을 털어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반년마다 개최되는 GOG meeting은 크게 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임상시험과 관련된 학술 심포지엄과 학술세션이고, 다른 하나는 GOG가 주관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임상시험에 대한 분야별 워크숍입니다. 학회 첫 날은 GOG 심포지엄에 참여 했는데, 주제는 'Design and Implementation Issues in GOG Clinical and Surgical Trials' 이었습니다. 임상시험의 디자인과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고찰해보는 시간이었는데, 비록 내용이 바로 피부에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임상시험의 큰 틀과 한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강의 내용으로는 임상시험에 있어서 일차목표로 삼고 있는 생존율과 생표지자에 대한 제한점, 임상시험에 있어서 비용 효과 및 삶의 질에 대한 변수를 임상시험 목표로 넣는 문제, GOG 임상시험에 환자등록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방안 및 국제적 임상시험에 있어서 마주치는 현안문제들에 대한 강의들이었습니다. 오





후에는 현재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자궁내막암에 있어서의 림프절 절제술의 효과, 그리고 자궁경부암 및 자궁내막암에 있어서의 로봇 수술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 각각 GOG 임상시험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부인암 영역에 있어서 감시림프절(Sentinel lymph node) 생검술의 유용성에 대한 강의를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대회장 호텔 야외풀에서 환영만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GOG에 참석하신 국내 선생님들이 모두 참석하시어, GOG 회원들과 뜻깊은 인사도 나누고 서로의 우정을 확인하는 등 따뜻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KGOG에서 제안한 프로토콜인 GOG206이 승인되어 곧 시작될 예정인 만큼, GOG 회원들도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이 많았습니다.

학회 둘째, 셋째 날에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 세 부분 분야에 대한 워크숍이 열렸고, 각 분야에 관심 있으신 KGOG 선생님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워크숍은 committee 멤버들이 원탁에 둘러 앉아 토론하고, 참관하는 사람들은 뒤에 앉아 경청하며 토론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한국의 다소 권위적이고 경직된 분위기와는 달리, 매우 활기차고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로 종료된 연구에 대한 리뷰와 현재 진행 중인 연구들의 진행 상황, 그리고 새로 제안된 프로토콜들에 대한 의견교환 및 표결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난소암 워크숍에서는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진행되었던 GOG218에 대한 긍정적인 중간결과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각 부인 암종별 워크숍에서도 새로운 치료방법으로서 표적치료(Targeted therapy)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 앞으로 이러한 표적치료가 GOG 임상시험의 중

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날 오전에는 Opening General Session이 있었는데, 새로운 협력병원으로 계명대 동산의료원과 서울성모병원이 선정되었음이 발표되었고, 2010년 개시될 프로토콜로 원자력병원 유상영 선생님이 책임연구자이신 GOG263이 소개되어 가슴 뿌듯했습니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제 5차 KGOG 미팅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에서 곧 시행될 예정인 GOG-233, 258, 249 및 기타 GOG 프로토콜에 대해 Atri M, Matei D, McMeekin S, Monk BJ 교수 등 책임연구자들이 초청되어 발표하였고, 각 프로토콜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교환을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 성과에 대해 강순범, 김종혁, 조치흠, 김재원, 주웅 선생님이 연구 발표 하였고, 저도 프로그램에 발표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감사했습니다.

KGOG 미팅 이후에는 저녁 9시까지 'Practice Challenges and Novel Targeted Therapies for Gynecologic Cancer' 라는 교육 강연에 참석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표적치료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국내 학회에도 초청되어 낮익은 Monk BJ, Burger RA 교수가 난소암에 있어서의 표적치료에 대해 발표하는 등, 표적치료에 대해 체계적으로 리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교육강연 이후에는 선생님들과 시내 변화가로 나가 이탈리아 음식점에서 맥주로 뜨거워진 머리를 식히고, 단합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다음 날도 전날에 이어서 각 committee별 워크숍들이 열렸고, 각 워크숍들을 참관하면서 GOG 임상시험의 전 과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의 세부사항 하나하나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검증 속에 다듬어져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면서, 그 동안 임상시험 수행 중에 무심코 지나쳤던 사항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귀국 비행기에 오르며, 한국 부인암 연구에 있어서 KGOG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젊은 부인암 연구자들이 GOG 미팅에 한번씩은 꼭 참여하여 좋은 경험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부인암 전문의를 위한 Cadaver Workshop 참관기



울산의대 울산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주 원 덕

지난 2월 27일과 28일 양일간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주최로 ‘제2차 부인암 전문의를 위한 Cadaver Workshop’이 가톨릭의대 의과대학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08년 제1차 cadaver workshop이 개최된 지 2년 만에 열리는 행사여서 자못 기대가 되었습니다. 연자로 초청된 Laszlo Ungar 교수는 현재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St. Steven’s Hospital에 근무하시고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유럽 부인종양학회의 대가이십니다.

토요일 아침 이른 시간이었지만 이응수 회장님과 이효표 명예회장님, 김재욱 명예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 강의실의 열기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골반과 회음부 해부구조에 대해 가톨릭의대 남용석 박사의 강의를 있었고 이어서 Ungar 교수가 laterally extended parametrectomy (LEP) procedure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LEP의 수술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type III hysterectomy의 개념에 덧붙여 내장골 동맥을 절단하고 이 부근의 림프절을 더 많이 제거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 척수신경 S1, S2 분지를 절단해도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Ungar 교수가 LEP를 주장하는 근거는 GOG #92 연구에서 림프절 전이가 있는 군에서 adjuvant radiotherapy가 국소재발은 감소시켰으나 생존율 향상이 없어 결국 림프절 전이가 예후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림프절을 좀 더 광범위하게 제거하는 것이 치료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Ungar 교수의 보고에 의하면 1993~2005년에 자궁경부암 stage Ib 환자 715명 중 림프절 전이가 있는 환자 70명에서 LEP의 overall survival이 91%에 달할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LEP의 치료 성적과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Ungar L, Palfalvi L. Surgical treatment of lymph node metastases in stage IB cervical cancer: the laterally extended parametrectomy (LEP) procedure. Int J Gynecol cancer. 2003 Sep-Oct;13(5):647-51”과 “Palfalvi

L, Ungar L. Laterally extended parametrectomy (LEP), the technique for radical pelvic side wall dissection: Feasibility, technique and results. Int J Gynecol Cancer. 2003 Nov-Dec; 13(6):914-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Ungar 교수의 LEP가 주는 시사점은 림프절 전이가 있는 환자에서는 특히 내장골 동맥 주변의 폐쇄공 림프절과 내장골 림프절을 좀 더 제거해야 한다는 점인데 만일 LEP를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노력은 좀 더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어서 차의대 박종택 교수님의 radical vulvectomy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박종택 교수님의 자상하신 설명으로 vulvar incision과 femoral-inguinal lymphadenectomy 방법 외에도 그 동안 성형외과에 의존하여 제대로 볼 기회가 없었던 musculocutaneous flap을 돌리는 방법을 직접 배우게 되었고 gracilis muscle을 잘라서 대퇴동정맥을 보호하도록 덮는 gracilis flap도 알게 되었는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 배우기 어려운 수술 테크닉들이었습니다.

일요일에는 난소암에서 extensive surgery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경북대 이윤순 교수님께서서는 소위 ‘radical oophorectomy’의 개념을 설명해주시면서 골반강내 잔류종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의해 주셨고 복막과 소장, 대장, 장간막의 implant를



제거하는 방법들을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가톨릭의대 이석외과 유경영 교수님은 상복부 전이의 cytoreductive surgery에 대해 강의해 주셨는데 황격막, 비장, 부신, 췌미부, 담낭 절제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SGO에서 이런 기회를 가지려면 적어도 \$1,000 정도 드는데 이번 workshop은 국내에서 저렴하게 외국보다 더 잘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지만 2년 전

제1차 workshop에 비해서는 다소 인원이 줄어서 직접 실기체험자 외에 간접 실기체험을 신청한 분들도 cadaver를 접하는 기회를 얻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해부용 시신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평소 해보고 싶었던 수술 수기도 직접 하고, 쉽게 보기 어려웠던 구조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workshop이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저널홈페이지

<http://www.gyneoncology.or.kr>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

HOME | E-PHIL | RSS FEEDS

- Home
- About Us
- Editorial Board
- Instructions for Authors
- Online Submission
- Abstract - Full Text [PDF]
- Manuscript Search

Current Issue

Vol. 21, No. 1, March 2010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
 ISSN 2005-0380 (Print edition)
 ISSN 2005-0399 (On-line edition)

Asi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Kore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and Colposcopy

Issue Navigation

Vol. 21, No. 1, March 2010

- » Editorial
Global cooperation in gynecologic cancer
 Edward L. Trimble
- » Review Article
Role o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inhibitors in the treatment of gynecologic malignancies
 Robert A. Burger
- » Original Article
Use of transrectal ultrasound for high dose rate interstitial brachytherapy for patients of carcinoma of uterine cervix
 Daya Nand Sharma¹, Goura Kisor Rath¹, Sanjay Thulkar², Sunesh Kumar³, Vellaiyan Subramani¹, Parmod Kumar Julka¹
- Clinical significance of tumor volume and lymph node involvement assessed by MRI in stage IIB cervical cancer patients treated with concurrent chemoradiation therapy**

Top 10 JGO Articles
 Nov. 1, 2008 to Dec. 10, 2009
 PDF DOWNLOAD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 is now indexed in
 SCIE, PubMed, PubMed Central, EMBASE, KoreaMed, Synapse

SCIE PubMed
 KoreaMed Synapse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 adapt the reporting guidelines
 CONSORT, PRISMA, MOOSE, STROBE, STARD

41st Annual Meeting on Women's Cancer

March 14-17, 2010

Moscone West Convention Center, San Francisco, California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최철훈

이번에 참석한 SGO는 부인종양학 분야에서 가장 큰 학회로 올해로 41회를 맞았다. 이번 2010년 SGO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아름다운 항구도시인 샌프란시스코에서 3월 14-17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참석인 이번 SGO에서는 우리 일행이 3개의 연구결과를 발표할 일정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하였다.

2010년 3월 13일 출발 당일, 오후 4시에 출발하는 샌프란시스코 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아침에 일어났는데 김병기 선생님께서 갑자기 비자 문제로 출발하실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매우 당황스러웠다. 김병기 선생님은 비자 문제를 급히 해결하고 3일 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셨다.

13일 오전 9시경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다른 일행과 같이 먼저 샌프란시스코 시내관광을 하기로 하였다. 금문교, 트윈피크스, 피어39, 알카트라즈 등 시내관광을 한 다음 피셔맨스워프에서 게요리로 저녁식사를 하였다. 같이 참석하신 선생님들과 가볍게 술 한잔 하고 잠자리에 들어 시차적응이 어렵지는 않았다.

14일 학회 첫날에 등록을 한 후 매번 각오하는 것이지만 싸지 않은 등록비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얻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부할 내용으로는 포스터는 370개가 전시되고 있었으며 14-17일 사이에 61개의 연구결과로 plenary session이 구성되어 있었다.

이 중 첫날 발표된 opening plenary session에는 5개의 초록

이 발표되었다. 첫 번째는 Mannel 등이 발표한 GOG 175의 결과로 초기난소암(Ia G3, IC, II)에서 3회의 Taxol/Carboplatin 투여 후, maintenance low-dose taxol (40mg/m²/wk x 24wk)의 효과를 본 3상연구인데, 생존율에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였다. 두 번째 발표는 GOG 198의 결과로 biochemical-recurrent-only인 환자를 대상으로 thalidomide와 tamoxifen을 비교하였는데, thalidomide가 더 효과적이지는 않다는 결과였다. 세 번째는 platinum-sensitive 재발성 난소암에서 weekly docetaxel과 carboplatin의 병합요법이 두 약물의 sequential treatment 보다 무병생존율을 향상시켰다는 결과였다. Lesnock 등은 reduced expression of BRCA1 (IHC)이 stage III 난소암에서 흔히 발견되고 intraperitoneal cisplatin-based chemotherapy 환자군에서 보다 양호한 예후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Norquist 등은 항암 치료 후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BRCA1/2 mutation이 platinum resistance와 관련된다고 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눈에 띄는 큰 연구결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학회 첫날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한 후, 저녁에 SGO social event에 참석하였다. San Francisco Giant의 홈구장이고 배리본즈가 홈런을 쳐냈던 AT&T Park 야구장을 방문하여 여러 선생님들과 여흥을 즐겼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야구장이 처음인데 깨끗하게 정리되어있고 야구를 생활로써 즐기는 미국인들의 삶을





조금 느낄 수 있었다. 여흥이 지속되어 저녁 늦게까지 과음을 하였고 다음날 학회는 무거운 몸으로 참석하였다. 그리고 국물이 있는 한국음식점을 찾아 속을 달랬다.

16일 화요일에는 우리나라 선생님이 발표가 있었고, 유희석 선생님이 “A validation study of new risk grouping criteria for postoperative treatment in stage IB cervical cancers without high-risk factors: Rethinking the Gynecologic Oncology Group criteria”라는 제목으로 plenary session에서 발표하셨다.

또한 김희승 선생님이 “Focused plenary-Cervix session에 Limited benefit of neoadjuvant chemotherapy before surgery in FIGO stage IB-IIA cervical cancer: A case-control study and meta-analysis”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높아져 있음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저녁에는 Korean night가 있었고 중국집에서 저녁 만찬을 가졌다. 강순범, 이준모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께서 참석하셨고, 가벼운 음주 후 호텔로 돌아왔다.

17일 수요일, 학회 마지막 날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날 마지막 강의까지 열심히 참석한 첫경험이었고 뿌듯하였다. 아무튼 이날 일정은 오전으로 끝이 났고 오후는 자유시간이 되었다. 오후에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인 케이블카를 탔으며 한적한 오후 시간을 시내에서 즐겼다. 학회 다음날에는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를 떠나기 못내 아쉬워 차를 렌트한 후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몬트레이, 17마일 드라이브를 다녀왔다. 무척 아름다웠다.

전 세계 부인종양학 의사들이 떠나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공부하기 위해 모였다가 또 다시 각자의 길로 떠났다.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내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가져보았다.



2010 Biennial ASCCP (The American Society for Colposcopy and Cervical Pathology) 참관기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산부인과 남계현

지난 3월 24-27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ASCCP 학회를 다녀왔다. ASCCP학회는 매 2년마다 주로 미국 동부와 서부 번갈아가며 개최되는 학회다. SGO개최 다음 주에 항상 열리므로, 양 학회를 동시에 참관하기는 힘들다. 차기 개최는 2012년 3월 21-24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이다.

본 학회에서 경북대 조영래 교수, 이화여대 김승철 교수, 연세대 김재훈 교수, 인하대 송은섭 교수 및 필자 총 5명이 참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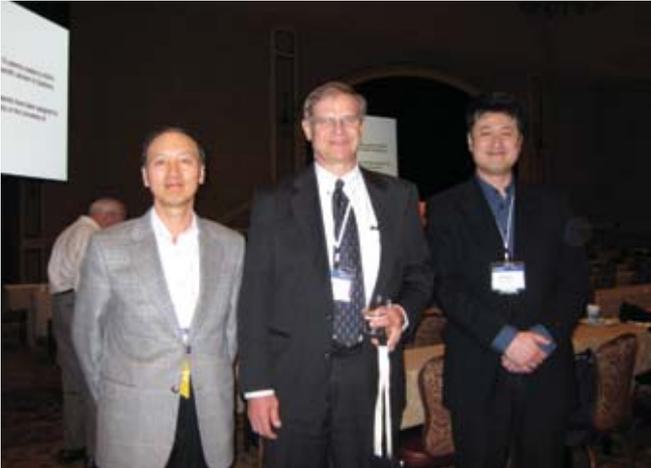
매일 오전 첫 세션 한시간은 Scientific Session으로 5-7개 정도 구연발표가 있고, 그 다음 2시간은 전문가의 특별 강연이 한가지 토픽에 대해 집중 강연 및 토론을 한다. 점심시간에는 Expert meeting이란 세션을 마련하여, 식사를 겸하여 한시간 반동안 전문가와 얼굴을 맞대고 심도있는 강의와 토론을 한다. 물론 공짜는 아니고, Early Registration (50불)를 해야만 한다. 오후는 질확대경 기술, 외음부 질환 다루기, 고해상도 항문경(High Resolution Anoscopy)강의 및 HPV vaccine 대한 강의를 하였다. 토요일 전일 동안 학회와는 별도로 LEEP course를 개설하여, 전반적인 LEEP 시술에 대한 실기 교육이 이루어졌다. 토요일 오후에는 “Vulvar Suturing and Reconstructive Techniques Workshop”이 있었다.

목요일 조찬 세션에서 “Resident Directors and Educator’s Breakfast”란 코스를 마련하여 전공의 질확대경 교육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ASCCP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공의 질확대경 시험 코스를 개발해 놓고있다. <http://www.ascpp.org> 홈페이지를 들어가 members services - Exam - Resident Exam 순으로 들어가면 자세한 설명이 있다. 전공의 수에 따라 1-5명이면 75불, 6-10명이면 150불 등등 35명 이상시는 최고 600불까지 수련병원에서 내면, 모든 전공의 시험을 칠 수 있다. 전공의 한명당 1년 1회 어느 시기나 홈페이지 접속하여 시험을 볼 수 있고, 시험 결과는 전국 전공의 시험 결과와 비교되어 100분율 percentile로 나온다. 매년 시험을 치를 수 있고, 4년간 시험 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비교할 수 있다. 미국외 다른 나라 전공의도 시험비를 내면 사용가능하다고 확인하였다. ASCCP 전공의 시험 프로그램을 이용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토요일에는 “New colposcopists’ Challenge

Bowel”를 마련하여 주로 전공의와 전임의 위주로 질확대경과 하부생식기에 대한 문제를 내어 가장 많이 맞춘 사람에게 즉석에서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였다. 이를 통해 전공의의 질확대경 교육도 도모하는 노력이 엿보였다.

발표 논문중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로 이중검사(cotesting : Pap + HPV testing)에 따른 임상가의 흥미를 유발하는 발표가 여러편 있었다.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로 자궁경부 세포검사와 인유두종 바이러스검사를 동시에 하는 경우 Pap은 음성이나 고위험군바이러스 양성 경력으로 진단된 55예 자궁경부암 환자 특징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세포 검사에서 놓친 것을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로 발견한 사례들로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추가한 이중 검사(double screening)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55예중 22예가 편평상피암, 31예가 선암이었다. 자궁경부 선암에 대한 자궁경부 세포 검사 발견이 편평상피암에 비해 떨어지므로, 예상대로 선암이 많았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자궁경부 세포 검사 음성, 고위험 인유두종 바이러스 양성인 경우 1년내 재검사를 권하는데, 발표자는 이러한 경우 적극적인 추적 조사가 필요하고, 질확대경 검사를 하는 경우 자궁경관 검사를 위한 자궁경관 소파검사(ECC:endocervical curettage)가 중요한 검사라고 권하였다.

또한 흥미로운 발표는 자궁경부암에 대한 이중 선별 검사후 양 검사가 모두 음성인 경우 뒤에 발견된 자궁경부암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622,751명 검사자중 14예가 발견되었다. 이들 발견 시기는 검사후 30개월(median 값) 뒤였다. 발생 빈도는 2.28/100,000/year로서 자궁경부암 검사 3회 연속 음성후 발생하는 자궁경부암 빈도 4.24/100,000/year (95% CI 2.47-6.79)(Sawaya et al., Acta Cytologica, 2005)보다는 낮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이중 검사(cotest)중 고위험군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 음성례에서 추적 검사에서 발견된 26예의 자궁경부암 환자에 대한 임상 특징 발표가 있었다. 이중 9예는 정상 자궁경부 세포검사 소견이었고, 17예는 비정상 세포 소견이었다. 특히 양쪽 검사가 음성인 경우는 발생 장기가 다 자궁경부가 아니었다. 양검사가 음성인 군에서 2/3는 질출혈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여 양 검사가 음성이라



일본 교수 Dr Sasaki (좌측), "five-biopsy Gold Standard"를 주장한 Dr. Pretorius (중앙)와 함께 찰칵



ASCCP 차기회장 Prof. Charles Dunton과 찰칵

도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필자는 수요일과 금요일 Scientific session에서 "Are random biopsies in addition to colposcopy directed biopsy necessary in the diagnosis of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CIN) II or worse?" 및 "Early Human Papillomavirus (HPV) testing prediction of residual/recurrent disease after LEEP"를 발표하였다. 최근 질확대경 검사시 만족스런 경우(satisfactory finding) 병변(lesion)이 없는 부위에 대한 착공생검(punch biopsy) 여부가 핫 이슈이다. 토요일에는 Dr Pretorius가 "Regardless of skill, Performing more biopsies improve colposcopic Accuracy" 주제를 발표하였다. 비정상세포진 소견에 대한 질확대경 검사시 "five-biopsy gold standard"를 주장하였다.

학회 부스에서는 자궁경부암 선별장비로 "Multimodal Spectroscopy"란 신장비가 소개되었다. 기존의 Pap 및 HPV 검사에 비해 CIN 2+를 약 20% 더 발견할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조만간 한국에서도 사용이 되지 않을까 추측된다.

토요일 정기총회에서 Charles J. Dunton이 Thomas C. Wright 현 회장 다음으로 회장에 선출되었다. 새로 선출된 Dr. Dunton은 필자가 15년 전 필라델피아 토마스제퍼슨 대학에 연수를 갔을 때 supervisor였다. Dr. Dunton과 연수 시절 이야기도 하고, 서로 가족 근황을 물었다. 매년 학회마다 참석하는 일본인 교수 Prof. Sasaki도 만났다.

한국에서는 부인암 전체를 다루는 부인암학회와 질확대경학회가 동시에 한 개의 학회 산하에 있다. 요즘 한국에서는 질확대경에 대한 교육 및 연구가 부진한 상태라고 판단된다. SGO와 ASCCP 처럼 분리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주로 외래에서 시행되는 질확대경 검사는 전공의 숫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공의의 외래 참여가 적어지므로 전공의의 질확대경 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욱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학회를 참석한 모든 교수들의 의견이었다. 이러한 때일수록 학회를 통해서라도 전공의의 질확대경 교육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인종양 학회지에 의무적으로 논문을 게재해야 하는 초록 제출자 명단

	제1저자	저자 소속기관	제 목	지원	해당학술대회	마감일	마감 종료
1	권상훈	계명대	동시 항암화학방사선요법을 시행 받은 자궁경부암 환자의 생존 분석	우수논문상(구연)	24차 학술대회	2010년 4월	
2	이재형	동국대	The evaluation of viral load and physical state of HPV 16 as a predictive and diagnostic marker for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and carcinoma of cervix	우수논문상(구연)	23차 학술대회	2009년 4월	0
3	강희석	성균관대	Outcome and reproductive function after cumulative high-dose combination chemotherapy with bleomycin, etoposide and cisplatin (BEP) for patients with ovarian endodermal sinus tumors	우수논문상(구연)	23차 학술대회	2009년 4월	0
4	유승철	이주대	A feasibility study of sequential chemo-radiation therapy in FIGO stage III-IV endometrial cancer patients	우수논문상(구연)	24차 학술대회	2010년 4월	
5	조한별	연세대	Blood gene expression profiling of ovarian cancer	우수논문상	21차 학술대회	2007년 4월	0
6	조한별	연세대	Pre-treatment neutrophil to lymphocyte ratio (NLR) is elevated in epithelial ovarian cancer and predicts survival after treatment	우수논문상(구연)	23차 학술대회	2009년 4월	0
7	이미범	연세대	Gene expression profile of epithelial ovarian cancer	우수논문상(포스터)	23차 학술대회	2009년 4월	0
8	조한별	연세대	Accuracy of preoperative assessment in endometrial cancer	우수논문상(구연)	24차 학술대회	2010년 4월	
9	남은지	연세대	A case-control study of robotic radical hysterectomy with pelvic lymphadenectomy compared with radical abdominal hysterectomy in cervical cancer	우수논문상(구연)	24차 학술대회	2010년 4월	
10	정용욱	연세대	Correlation of human leukocyte antigen-G expression and disease progression in epithelial ovarian cancer	우수논문상(포스터)	24차 학술대회	2010년 4월	
11	김대연	울산대	Laparoscopic feasibility of nerve-sparing radical hysterectomy and trachelectomy in patients with cervical cancer: preliminary results and efforts to increase radicality	우수논문상(구연)	23차 학술대회	2009년 4월	0
12	김용만	울산대	Screening of genes related to cisplatin resistance in uterine cervical cancer	학술대상	24차 학술대회	2010년 4월	
13	엄정민	울산대	The role of secondary cytoreductive surgery in the management of recurrent epithelial ovarian cancer	우수논문상(구연)	24차 학술대회	2010년 4월	
14	현민경	울산대	The role of pelvic and/or paraaortic lymph node dissection in the surgical management of apparently early stage malignant mixed mullerian tumor of uterus	우수논문상(포스터)	24차 학술대회	2010년 4월	
15	한승수	중앙대	ERCC1 C19007T polymorphism is not associated with the risk and invasiveness of cervical cancer in Korean women	우수논문상(포스터)	24차 학술대회	2010년 4월	
16	신지은	차의과대학	Fertility preservation by photodynamic therapy in early cervical cancer or endometrial cancer	우수논문상(구연)	24차 학술대회	2010년 4월	

학술대상, 우수논문상 수상 내역

학술대상

본 학회 공식 저널지인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에 우수한 논문을 투고하여 학술대상을 시상하였습니다. 시상은 11월 13일(금) 제15차 심포지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자	저자 소속	제 목
1	김용만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Screening of genes related to cisplatin resistance in uterine cervical cancer

우수논문상

본 학회 공식 저널지인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에 우수한 논문을 투고하여 우수논문상을 시상하였습니다. 시상은 11월 13일(금) 제15차 심포지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연	저자	저자 소속	제 목
1	남은지	연세의대	A case-control study of robotic radical hysterectomy with pelvic lymphadenectomy compared with radical abdominal hysterectomy in cervical cancer
2	권상훈	계명대의대	동시 항암화학방사선요법을 시행 받은 자궁경부암 환자의 생존 분석
3	신지은	차의과대학	Fertility Preservation by Photodynamic Therapy in Early Cervical cancer or Endometrial cancer
4	유승철	아주대의대	A feasibility study of sequential chemo-radiation therapy in FIGO stage III-IV endometrial cancer patients
5	조한별	연세의대	Accuracy of preoperative assessment in endometrial cancer
6	엄정민	울산의대	The role of secondary cytoreductive surgery in the management of recurrent epithelial ovarian cancer

포스터	저자	저자 소속	제 목
1	현민경	울산의대	The role of pelvic and/or paraaortic lymph node dissection in the surgical management of apparently early stage malignant mixed mullerian tumor of uterus
2	정용욱	연세의대	Correlation of human leukocyte antigen-G expression and disease progression in epithelial ovarian cancer
3	한승수	중앙의대	ERCC1 C19007T polymorphism is not associated with the risk and invasiveness of cervical cancer in Korean women

학회 회무보고

제 1차 부인암 진료권고안 개발 회의

- 일 사: 2009년 4월 7일(화) 오후 7시
- 장 소: 부인종양학회 사무국
- 참석자: 박상윤, 김병기, 이 찬, 김승철, 이정원, 김미경, 임명철

▶ 회의 내용

1. 위원장님 말씀: 진료권고안 version 1.1을 2006년 개발하였고 지금쯤 revision이 필요한 시기로 생각됨. 최근 보고된 다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실정에 맞는 unique한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version의 권고안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
2. 2006년 개발위원회 명단을 참조하여 각 위원회 위원, 자문위원, 그리고 관련학회 자문위원 명단을 작성함(표 참조).
3. 새 권고안 작성에 version 1의 양식을 기초로 하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검토 및 수정하기로 함.
4. 외부 지원 및 공동개발(대한의학회 혹은 개인 예방의학연구자)에 따른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박상윤 위원장이 조사하기로 함.
5. Preinvasive lesion에 대한 내용을 권고안에 포함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부인암 예방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동의함.
6. 새로운 권고안의 개발 방향
 - Version 1.1을 토대로 최근판 NCCN 권고안, 새로운 임상연구 결과, meta-analysis, 국내 연구결과를 조사하여 최근 자료를 활용.
 - 권고안의 서술 부분: version 1의 내용은 주로 NCCN의 내용을 도용하여 작성한 것처럼 보이므로 새 버전에는 독창적인 형식 및 내용이 요구됨.
 - 권고안 요약 부분: 이 또한 NCCN과 유사한 포맷이므로 새로운 논점이 정리된 다음에 전문적인 디자이너에게 새로운 형식에 대한 자문이 필요함.
 - 요약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출간
7. 향후 회의 일정: 5월 19일, 6월 15일, 7월 20일
8. 2차 회의(5월 19일) 토의 예정 내용: 전체 위원(관련학회 자문위원 제외)이 모여 진행
 - 각 팀장 및 간사가 version 1.1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번에 수정하여야 할 내용을 미리 list-up하고 사전 조사를 시행
 - 사전회의에서 list-up된 내용에 대하여 간단한 토의 후 각 위원들에게 assign하여, 다음회의에 자료 조사를 하여 발표 후 consensus를 얻도록 함.
9. 학회에서 준비해줄 사항
 - 위원 및 자문위원, 관련학회 자문위원에게 연임 및 신규 위촉에 대한 공문 발송.
 - Version 1.1의 파일을 위원들에게 미리 보냄.

2009년 부인암 진료권고안 개발 위원회 명단

회장	황윤영(포천중문의대)
위원장	박상윤(국립암센터)
부위원장	김병기(성균관의대)
전체 간사	이정원 (성균관의대)
자궁경부암	
팀장	김승철(이화의대)
간사	주 옹(이화의대)
자문위원	김영탁(울산의대), 배덕수(성균관의대) 박종섭(가톨릭의대), 최호선(전남의대) 한세준(조선의대)
위원	김찬주(가톨릭의대), 김영태(연세의대) 김태진(제일병원), 김용범(분당서울대) 이광범(길병원), 김대연(울산의대) 최석철(원자력병원), 권용일(한림의대) 장석준(아주대), 정대훈(인제의대) 이택상(보라매병원), 남계현(순천향의대)
자궁체부암	
팀장	김재원(서울의대)
간사	정현훈(서울의대)
자문위원	유희석(아주의대), 이윤순(경북의대) 차순도(계명의대), 오병찬(전북의대) 윤만수(부산의대)
위원	장기홍(아주의대), 김재훈(연세의대) 김종혁(울산의대), 이기현(관동의대) 차문석(동아의대), 송은섭(인하의대) 이낙우(고려의대), 성석주(차의대) 서상수(국립암센터), 권상훈(계명의대) 박동춘(가톨릭의대), 류기성(가톨릭의대)
난소암	
팀장	김병기(성균관의대)
간사	김태중(성균관의대)
자문위원	남주현(울산의대), 이선경(경희의대) 조영래(경북의대), 김기태(인제의대) 김원규(고신의대)
위원	김용만(울산의대), 조치흠(계명의대) 허수영(가톨릭의대), 김석모(전남의대) 이 찬(차의대), 차문석(동아의대) 고재환(인제의대), 강석범(국립암센터) 유상영(원자력병원), 김상운(연세의대) 고석봉(대구가톨릭), 송용상(서울의대)

학회 회무보고

관련학회 자문위원

-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박 원 (성균관의대), 김주영 (국립암센터), 우홍균 (서울의대)
- 대한병리학회 산부인과 병리연구회
김인선 (고려의대), 김동원 (순천향의대), 안희정 (차의대)
유종우 (국립암센터), 홍성란 (제일병원), 김규래 (울산의대)
- 대한핵의학회
김석기 (국립암센터), 김석기 선생님 추천 1인
- 대한비뇨생식영상의학회
최혁재 (울산의대), 정승은 (가톨릭의대), 정대철 (국립암센터)
박병관 (성균관대의대)
- 대한암학회 및 한국임상암학회
김훈교 (가톨릭의대), 박희숙 (순천향의대), 박영석 (성균관대의대)

제 1차 명예회장단 및 상임이사회 회의

- 일 시 : 2009년 4월 17일(목) 오후 7:00
- 장 소 : 대구인터불고호텔 운해
- 참석자 : 강순범, 김경태, 김성한, 김승조, 김영태, 김영탁
김재욱, 목정은, 박상윤, 안웅식, 유희석, 이규완
이응수, 이 찬, 조영래, 차순도, 황윤영 (이상 17명)

1. 인사말씀

2. 전임 명예회장 뱃지 증정

3. 보고사항

- 2009년 제 24차 춘계학술대회 ---무수정 통과
 - 등록현황: 사전등록: 301명
 - 학술대상: 김용만(울산의대)
제목: Screening of genes related to cisplatin resistance in uterine cervical cancer
 - 학회지 공로상
 - 임명철(국립암센터): Pathological Diagnosis And Cytoreduction Of Cardiophrenic Lymph Node and Pleural Metastasis in Ovarian Cancer Patients Using Video-Assisted Thoracic Surgery (Annals of Surgical Oncology)
 - 박노현(서울의대): Risk Factors for Recurrence of Vaginal Intraepithelial Neoplasia in the Vaginal Vault After Laser Vaporization (Lasers in Surgery and Medicine)

- 송용중(국립암센터): Total Colectomy as Part of Primary Cytoreductive Surgery (Gynecology Oncology)
- 김희승(서울의대): Genetic polymorphisms affecting clinical outcomes in epithelial ovarian cancer patients treated with taxanes and platinum compounds: A Korean population-based study (Gynecologic Oncology)
- 박정열(울산의대): Surgical management of borderline ovarian tumors: The role of fertility-sparing surgery (Gynecologic Oncology)

④ 영어 우수논문상

학회 공식학술지인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 에 논문을 투고하여 19권 4호(2008년 12월)부터 20권 1호(2009년 3월)에 게재된 논문 총 15편에게 시상할 예정

2) 제 15차 심포지엄 개최

날짜: 2009년 11월 13일(금)
장소: 서울아산병원 대강당
외국연자: 미정

3)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 20권 1호 발간

(발행일자 : 2009년 3월 31일)
부인종양학회 소식지 3월(통권 15호) 발간

4. 논의사항

1) 학술상 변경 관련

- 논문 미제출자 대처 방안: 이번 학회부터 학술대상 및 우수논문상은 선정 후 수상 후보자로 발표만 하고 논문 제출상황을 본 후에 11월 또는 다음 학술대회에서 시상하기로 정함
- 대부종 제2009-10호와 관련된 학술상 선정 의뢰 건은 2008년 6월호~12월호는 영문 논문 제출에 따른 학술상을 수상한(하는) 경우임. 한 논문으로 두 번 수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문과 관련되어 선정된 논문은 과기총 우수 논문으로 추천키로 의견 모음

2) 우수논문상(영어), 학회지 공로상 상금 변경 관련

	기존	현재
우수논문상(영어)	300,000	300,000
학회지 공로상	300,000	100,000

학회지 게재를 장려하고, SCI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재자(우수 논문)와 SCI 논문 게재시 학회지를 인용한 분(공로상)들에게 전원 상금을 지급하되, 공로상 상금은 삭감하기로 결정

학회 회무보고

제3차 부인암예방위원회

- 일 시 : 2009년 5월 18일(월) 오후 7시
- 장 소 :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사무국
- 참석자 : 송용상(위원장), 강석범, 권용일, 김병기, 김용범, 이정필, 최석철, 이 찬(사무총장), 이상 9명

▶ 논의 사항

1. Guideline for Gynecological Cancer Patients (가안)에 관한 건
발표자
권용일(한림의대) : Exercise Guideline for Gynecological Cancer Patients
이정필(아주의대) : Diet Guideline for Gynecological Cancer Patients
강석범(국립암센터) : Alternative Medicine Guideline for Gynecological Cancer Patients
김용범(서울의대) : Guideline for Lymphedema patients
이선영(포천중문의대) : 미참석
- 토의사항
 - 향후 발표는 review와 guideline summary의 두가지를 하는 것으로 한다.
 - review 발표자 : 강석범, 김용범, 이선영
 - summary 발표자 : 권용일, 이정필, 이선영
2. 제4차 예방위원회는 7월 초에 개최하기로 한다.

편집위원회 7기 제 8차 회의록

- 일 시 : 2009년 5월 19일(화) 오후 7시
- 장 소 : 학회 사무실
- 참석자 : 황윤영, 이 찬, 유희석, 장기흥, 김승철, 김영태, 김종혁, 김재원 (이상 8명)

1. 제 7차 편집위원회 회의록 - 무수정 통과

2. 보고사항

- 1) 3월호 발간
- 2) 원고 접수 현황
- 3) 의무적 논문 제출 대상자 목록
- 4) DB 등재 신청 관련
SCIE, PubMed, PubMed Central (PMC), EMBASE: accepted
Scopus: rejected, re-suggested, Medline: pending

Indexed in SCIE, PubMed, PubMed Central, EMBASE, KoreaMed, Synapse

- 5) www.gyneoncology.or.kr site hit number
SCIE, PubMed, PMC, EMBASE banner, 표지 등 추가, 학회지 site 수정 필요

3. 논의 사항

- 1) 논문 배포 범위: ASGO 각국 회원 학회 및 각국 산부인과 의국에 발송
- 2) Board Member 보강(ASGO, 암센터, 성균관의대)한다.
- 3) 11월 학회 심포지엄에서 JGO session 추진한다.
- 4) 9월, 12월 종설 주제/저자 선정 필요
- 5) 다음 편집위원회에서 EMM 관계자 초청 간담회 개최한다.
- 6) 학술대상 및 학술상(구연, 포스터)을 full paper가 발간된 후에 차기 학술대회에서 시상하도록 학술위원회 및 상임이사회에 건의한다.
- 7) 7월에 학진 국제학술지 발행 지원 신청한다.
- 8) 6월 9일 SCIE/PubMed 진입 축하 모임 예정임

제 1차 수련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09년 5월 21일(목) 오후 7시~8시
- 장 소 : 부인종양 사무국
- 참석자 : 김수녕(위원장), 이 찬(사무총장), 성석주, 유상영, 송재윤, 이선주(간사)

▶안건: 제 3회 부인종양을 연구하는 젊은 의사들을 위한 워크숍 (가칭) 프로그램

▶회의내용: 아래와 같음

〈제3회 부인종양을 연구하는 젊은 의사들을 위한 워크숍 (가칭)〉

개최 일시: 2009년 9월 18일 금요일

개최 장소: 건국대병원 지하 3층 대강당

등록비: 결정 필요함

Session I : 임상에 관한 내용으로 (세션명 미확정)

- 1) 2008년과 같이 debate 혹은 cons and pros 형식으로 할지?
- 2) 강의 형식으로 할지?
 -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6월 중 실제로 각 병원 전임의들에게 설문을 돌릴 예정임.
 - 형식이 정해지는데대로 위원들께 연제 및 연자 추천을 받을 예정임.

학회 회무보고

Session II : research laboratory를 운영하는 법 (가제)

- 1) Fund를 따오는 know-how
- 2) Lab 설립 및 운영법
- 3) 연구계획서 작성법
- 4) IRB 통과하는 방법

Session III : 질확대경 검사 (가제)

- 1) 질확대경 검사의 general practice (2007년도 1회 연제)
- 2) ASCCP site에 있는 사진을 중심으로 Q&A 혹은 Quiz 형식의 문제 풀기

Session IV : 논문 작성법

- 1) 영어 편지 작성법
- 2) 젊은 의사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인터넷 site 소개
- 3) Endnote 사용법
- 4) 통계 강의 - survival analysis

제2회 모임: 2009년 6월 26일 오후 7시

취영루 (건대 스타시티점)

추후과제:

- 6월 중 각 병원 전임의들에게 session I의 형식에 대해 설문문을 돌릴 예정임.
- 설문 결과에 따라 모임 전에 e-mail을 통해 세션명과 연제, 연자에 대해 미리 위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임.
- Session 및 연제에 대한 시간 배분이 필요함.
- 애프터 장소를 확정해야 함.

제3차 학술위원회

- 일 시 : 2009년 6월 16일(화) 오후 7시
- 장 소 : 학회 사무실
- 참석예정 : 김병기, 김용만, 김원규, 김재원, 남계현, 이낙우, 이선경, 이응수, 이 찬, 황윤영 (이상 10명)

1. 보고사항

- 1) 2009년 4월 17일(금) 대구 인터볼고호텔, 제 24차 춘계학술대회 개최함
등록인원: 328명

2. 논의사항

- 1) 학술대회 운영 개선점
 - 연자, discussant, 좌장 등: 대학, 기관 배분 필요
 - 학술대회지 표지 개선
 - 학술대상, 학술상 등 시상 관련 개선(논문게재후 시상)

2) 2009년 11월 13일(금) 서울아산병원 대강당

- 제 15차 추계 심포지엄 연제/연자 선정
- 편집위원회 session 요청--제15차 심포지엄에서 session 배정
 - 대한산부인과학회 부인종양소위원회 박상운 위원장의 요청 : 부인암 등록사업 관련 홍보/교육
 - 외국 연자: Prof. Gavin Stuart, 캐나다 British Columbia 대학 (확정)
 - 외국 연자 추가 접촉? (심포지엄 준비상 6월중 섭외완료)
 - Best of ASCO, Gyn Oncology part review: 추계 심포지엄시 session 배정
 - 장기연수 귀국자 발표 기회--최근 1년간 연수후 귀국한 교수를 대상으로 선정 후 제15차 심포지엄에서 발표(2명)

3) 2010년 제 25차 춘계학술대회 준비

- 올해 format 유지(오전 plenary session 등)
- 초록 접수 등 일정 공지 필요 - 11월 마감 목표로 추진 (개선 일정 첨부)
- :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갖고 내년 춘계학술대회부터 추진
- 2010년 6월 10일~11일, 제 36차 대한암학회
- : 대한부인종양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암학회 Joint Symposium 추진
- : Educational symposium 형식
- 대한의학회의 각 학회 학술 활동 평가 항목: 영어 진행 세션, 연구 결과 영어 발표 세션
- : 초청 외국 연자에게 일반연제 좌장 맡도록
- : 일반연제부터 시행

학회 준비 일정 (기존)

- | | |
|--------|---|
| 1월 3째주 | 학술위원회 개최 - 일정 초안 |
| 2월 2째주 | 세부프로그램 확정 - 학술위원회 |
| 2월 3째주 | 발표자에게 강의의뢰/수락 - 3월말 원고 마감
학술대회 홈페이지 완성
24차 학술대회 프로그램 발송 |
| 2월 ~ | 초록접수 기간 |
| 3월 2째주 | 초록접수 마감 |
| 3월 3째주 | 학술위원회 개최 -학술대상, 구연, 포스터 등 확정/ 메일로도 가능 |
| 3월 4째주 | 학술대상, 구연, 포스터 등 통보, 원고 마감 |
| 4월 ~ | 학술대회 진행 |

학회 준비 일정 (개선안): 다음 해 춘계학술대회를 그 전 해 11월 말에 초록 마감하고 12월 중에 준비 끝낸다.

- | | |
|--------|----------------------------|
| 8월 3째주 | 학술위원회 개최 - 초안 완성, 외국 연자 수배 |
|--------|----------------------------|

학회 회무보고

- 9월 2째주 세부프로그램 확정
- 9월 3째주 발표자에게 강의의뢰/수락 - 11월말 원고 마감
학술대회 홈페이지 완성
- 10월 중순~ 초록접수 시작
- 11월 말 초록접수 마감
- 12월 중 학술위원회 개최 -학술대상 (대상자), 구연, 포스터 등 확정
- 1월 중 학술대상 (대상자), 구연, 포스터 등 통보, 원고 마감
25차 학술대회 프로그램 발송
- 4월 ~ 학술대회 진행

외국 연자

Gavin C.E. Stuart, MD
Dean, Faculty of Medicin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317-2194 Health Sciences Mall, Vancouver, BC V6T 1Z3
Ph. 604-822-5767, FAX 604-822-8017

제 2차 수련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09년 6월 26일(금) 오후 7시
- 장 소 : 취영루 (건국대병원 스타시티점)
- 참석자 : 김수녕(위원장), 이 찬(사무총장)
유상영, 송은섭, 이선주(간사), 배재만(차기간사)

▶ 안건: 제 3회 부인종양을 연구하는 젊은 의사들을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

▶ 결과:

1. 전임의 현황파악 (총 51명)
2. session I 강의형식에 대한 설문회수 및 분석(82%의 응답 중 73.8%가 교육강의를 원함)
3.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을 결정함
(제3회 부인종양을 연구하는 젊은 의사들을 위한 워크숍)
개최 일시: 2009년 9월 18일 금요일
개최 장소: 건국대병원 지하 3층 대강당
등록비: 사전등록 1만원 / 현장등록 2만원
08:20~08:50 등 록
08:50~09:00 인사말

황윤영 교수 (차의과대학)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회장)

Session I : Update on Premalignant Gynecologic Diseases

- 좌장: 한세준 (조선의대)
09:00~09:30 Uterine Cervix 배재만 교수 (건국의대)
09:30~10:00 Management of Borderline Ovarian Tumor 유상영 교수 (원자력의학원)
10:00~10:30 Endometrial Hyperplasia 송은섭 교수 (인하의대)
10:30~11:00 Recent Trends in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Gestational Trophoblastic Trophoblastic Neoplasia 정상근 교수 (차의과대학)

11:00~11:10 질문 및 토의

11:10~11:30 휴식

Session II : Overview of Colposcopy

- 좌장: 김승철 (이화의대)
11:30~12:00 Colposcopy at a Crossroads 남계현 교수 (순천향의대)
12:00~12:30 ASCCP Problem Solving 이선경 교수 (경희의대)

12:30~13:30 점심식사

Session III : Know-how of Research

- 좌장: 유희석 (아주의대)
13:30~14:00 Fund 따오는 법 조치흠 교수 (계명의대)
14:00~14:30 임상시험 수행과 IRB 김선희 간호사 (KCOG)
14:30~15:00 Lab 설립 및 운영법 김재훈 교수 (연세의대)
15:00~15:10 질문 및 토의
15:10~15:30 휴식

Session IV : 논문작성법

- 좌장: 이선경 (경희의대)
15:30~16:00 영어 구연법 장기홍 교수 (아주의대)
16:00~16:30 Endnote 사용법 임병성 (펠사이언스)
16:30~17:00 통계강의 (survival analysis) 김수녕 교수 (건국의대)

17:00~17:10 질문 및 토의

17:10 폐회식

저녁식사: 옥스 (Oxen)

변동 사항

- 1) 회의 중에는 session I의 각 강의별로 discussant를 두고 토의하자고 하였으나 discussant에 의한 토론을 없애기로 함.
- 2) 시간 배분 및 없어진 토의 시간을 보강하기 위한 방편으로 session 마지막에 질문 및 토론 시간을 둠
→ 추후 모임에서 확정해야 함

학회 회무보고

미해결 과제

- 1) 아직도 가제로 남아 있는 제목들을 연자와 상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2) 미정인 연자를 섭외하여야 함
- 3) 미정인 좌장을 결정하여야 함

제1차 부인종양학 교과서 편찬을 위한 사전모임 회의록

- 일 시 : 2009년 7월 22일(수) 오후 7시
- 장 소 : 취영루
- 참석자 : 유희석, 한세준, 이규완, 김승조, 황윤영, 이 찬, 배동한, 김경태 (이상 8명)

1. 회장님 인사말씀

2. 김경태 전화장담 경과보고

3. 토의사항

- 1) 교과서는 5년 주기로 개정을 한다.
- 2) 전국의 조교수 이상 Staff를 모두 참여케 한다.
- 3) 편집위원장 및 팀장으로 유희석 교수(아주의대)를 위촉한다.
- 4) 집필진은 실제로 부인종양에 관련된 사람으로 하고, 각 학교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 5) 단원책임자를 선정한 후 감수하는 system으로 한다.

부인암 진료권고안 작성 소위원회 회의 안건 (진료권고안 작성을 위한 워크숍 사전 준비 모임)

- 일 시 : 2009년 7월 28일(화) 오후 7시
- 장 소 : 부인종양학회
- 참석자 : 박상윤, 김승철, 김재원, 안형식, 이정원, 주 응정현훈, 임명철

회의순서

위원장 인사말: 2009년 부인암 진료권고안 작성 방향 및 진행, 워크숍의 의의

▶ 안건

1. 워크숍 일정 확정 및 준비(식사, 교재 등)
; 이견회를 대실하였고 교재는 강사들에게 받아서 제작하기로 함.
2. 진료권고안 작성위원회 향후 일정 논의(대한의학회 지원 부분)
; 대한의학회 연구로 1년간 권고안 작성을 계획하였고 별첨과 같이 일정을 정함.

3. 연구비 지원 및 사용에 대한 논의(교통비 지급 등..)

; 이번 권고안 작성은 다학제간 개발이므로 타과가 자문학회로 분류되지 않게 됨. 즉 이전에 지급되던 타과 자문선생님들에 대한 출장비 지급은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할 것임. 그러나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교통비는 지급예정임.

4. 타과 자문위원 확정

; 부인종양학회에서 관여할 것이 아니고 대한의학회에서 타과 학회에 공식적인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기로 함. 안형식 교수님이 의학회에서 공문발송을 의뢰할 예정임.

별첨 1. 부인암 진료권고안 개발 계획.

별첨 2. 부인암 진료권고안 위원회 위원 주소록.

부인암 진료권고안 작성을 위한 워크숍

- 일 시 : 2009년 8월 1일(토) 오전 9시~오후 5시
- 장 소 :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견회를
- 참석자 : 박상윤, 김승철, 김재원, 안형식, 이정원, 주 응정현훈, 임명철

▶ 워크숍 주요논의점

1. 황윤영 교수님: gestational trophoblastic tumor에 대한 진료권고안 작성을 추가로 진행하지는 의견이 있었음. 향후 위원간의 논의가 필요함.
2. 전체회의는 의협동아홀에서 하기로 함(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있음)
3. 김승철 교수님: 본 권고안 작성시 문헌고찰 및 meta-analysis 시행 후 얻어진 결과를 권고안 작성시 적용할 수 있음을 논의를 통해 동의를 구함.
4. 각 팀장 및 간사는 Key questions을 위원들에게 사전에 메일을 통하여 survey해야 함.
5. 다른 나라의 진료권고안 작성 예를 좀 더 조사하기로 함.
6. 다학제팀 구성에서 인력은 탄력적으로 조절하기로 함 (즉 과별 인원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음).
7. 문헌의 질평가: 문헌의 질이 높다고 알려진 Cochrane review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이후 RCT나 observational study를 조사하여 참조하기로 함.
8. 소프트웨어로 Gradepro를 사용하기로 하고 차후 실무에서 의학회에 도움을 받기로 함.

▶ 기타 안건

1. 자궁체부암 팀 간사 변경건: 이택상 선생님(정현훈 선생님은 자궁경부암 팀 위원으로 변경)
2. 의학회 주체로 열리는 코크란 리뷰 워크숍에 본 위원회 간사 3명을 참석하도록 결정함.

학회 회무보고

▶ 기타안건 (박상윤 교수님)

1. 연구비 지원 및 사용에 대한 논의(교통비 지급 등..)
 - ; 이번 권고안 작성은 다학제간 개발이므로 타과가 자문 학회로 분류되지 않게 됨. 즉 이전에 지급되던 타과 자문 선생님들에 대한 출장비 지급은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할 것임. 그러나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교통비는 지급예정임.
 - 타과 자문료는 자궁경부암에만 관한 사항이고 난소암, 체부암은 지급하기로... 자궁경부암도 개발비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2. 타과 자문위원 확정
 - ; 부인종양학회에서 관여할 것이 아니고 대한 의학회에서 타과 학회에 공식적인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기로 함. 안형식 교수님이 의학회에서 공문발송을 의뢰할 예정임.
 - 이 또한 자궁경부암에 한해서임. 단, 의학회에서 공문 보낼때 기존 자문의를 추천하기로 약속했음.

- 2) 의무적 논문 제출 대상자에게 개별 mail 발송, 학회 홈페이지 목록 게재기로 함
- 3) 2010년 표지 디자인 변경 → 현 디자인 유지기로 함
- 4) 11월 학회 심포지엄 JGO session 건: 학술위원회와 추가 논의기로 함
- 5) 12월/3월호 종설 주제/저자 선정: Kitchener 종설은 ESGO 기간 중에 재촉하기로 함

편집위원회 7기 제9차 회의록

- 일 시 : 2009년 8월 13일(목) 오후 7시
- 장 소 : 학회 사무실
- 참석자 : 이 찬, 유희석, 장기홍, 김병기, 김승철, 김재원, 김상운 (김영태 대리 참석, 박상윤 (전화 참석) (이상 8명)

1. 제 8차 편집위원회 회의록 - 무수정 통과

2. 보고사항

- 1) 6월호 발간함
- 2) 국제학술지발행지원 신청함
- 3) 원고 접수 현황
- 4) 의무적 논문 제출 대상자 목록
- 5) www.ejgo.org 내용 수정함
- 6) Google print project 참여

3. 논의 사항

- 1) 9월호
 - Editorial: PET 유용성 관련 내용으로 추진
 - Review: Robotic & single-port laparoscopic surgery 준비 중임
 - Meeting report: JSGO - Prof. Yahata에게 재차 mail 발송하기로 함
 - Original articles: review 및 revision 재촉하기로 함
 - etc: case report 3편 완료, erratum 등 예정임

제4차 부인암예방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09년 9월 1일(화) 오후 7시
- 장 소 :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사무국
- 참석자 : 송용상(위원장), 강석범, 권용일, 김병기, 김용범, 이선영, 이정필, 최석철, 이 찬(사무총장), 이상 9명

▶ 회의 내용

1. Guideline for Gynecological Cancer Patients (가안)에 관한 건
 -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본 학회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 각 담당자는 아래의 내용에 관한 권고안을 정하고 권고안의 끝에는 참고문헌을 담기로 하였습니다.
 - 각 담당자는 원고를 9월 15일까지 준비하여 간사(김용범)에게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 간사가 이를 취합하면 김병기 선생님과 최석철 선생님께서 9월 30일까지 감수하기로 하였습니다.
 - 최종 확정된 후에는 학회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권고안 책자 작성에 관한 건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내용
 - 1) General Guideline for Cancer Prevention
이정필 (아주의대)
 - 2) Guideline for Gynecological Cancer Patients
 - A. Diet Guideline for Gynecological Cancer Patients
이정필 (아주의대), 이선영 (포천중문의대)
 - B. Exercise Guideline for Gynecological Cancer Patients
권용일 (한림의대)
 - 3) Guideline for Specific Condition
 - A. Exercise Guideline for Patient with Lymphedema
김용범 (서울의대)
 - B. Alternative Medicine Guideline for Gynecological Cancer
강석범 (국립암센터)
 - C. Sexual life guideline for Gynecological Cancer Patients
이선영 (포천중문의대)

학회 회무보고

부인암 진료권고안 작성 소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9월 7일(월) 오후 7시~8:30
- 장 소 : 부인종양학회
- 참석자 : 김병기, 김승철, 김영태, 김용범, 김재원, 김태중, 남계현, 박상윤, 이정원, 이택상, 임명철, 장석준, 정현훈, 주 웅 (가나다 순)

모두 발언

박상윤 - 취지, 개요 설명, 의학회와 같이 co-work, 비용 및 전문가의 도움 받음.

1. Key questions 작성시 신속한 정리 요망됨

- A. 각 암종별로 대표적인 1개의 key question을 다음 교육 시 (9월 21일) PICO (population,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에 맞추어 실제 분석 예제에 대한 강의를 듣기로 함 (연자: 심평원 김소희 연구원).
- B. 이론적 강의보다는 실례를 통해서 grading program 실습 위주 강의를 필요함.
- C. Key question은 9월 21일 강의 전에 작성하고, 강의 후 selection하는 것이 바람직함.
- D. 외부 전문가 강의 외 내부 강사로 주웅 선생님 강의를 포함하기로 함.

2. 참고할 해외 guideline

- A. 작년 대한부인종양학회 진료 지침
- B. NCCN guideline
- C. 일본 부인종양학회 guideline (jsgo.gr.jp)
- D. 영국 (sign.ac.uk)
- E. EMBASE.com-각 병원에서 자료 사용여부 확인하기로 함.
 - 이번에 개정된 FIGO stage 반영하기로 함.

3. Meta-analysis 범위

- A. Cochrane 등 기존의 분석되어 publish된 시점 이후 논문을 추가하여 한국실정에 맞는 결과를 얻기로 함.
- B. 지침은 quality 평가를 위해서라도 분석의 methodology는 모두 기록해두어야 함.
- C. 현재 meta분석되어 있지 않는 key question은 향후 KGOG과제로 적극 고려할 수 있음.
- D. 향후 guideline작성의 methodology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회의 기록 등 모든 log를 작성하기로 함.

4. 9월 21일 교육 관련

- A. 교육자 섭외
 - i. 의학회 (고대 예방의학교실; 김현정)
 - ii. 심평원 관계자 (김소희 연구원)

- B. 교육장소 (PBL room활용 - 3개 분과 토의 room 필요함)
: 강남성모병원 → 서울대 → 이화여대 → 삼성병원 순으로 섭외예정

- 5. Guideline의 범위: common histology까지만 포함하기로 함. Rare histology 제외하기로 함.
예) small cell ca

- 6. Meta-analysis 논문작성시 authorship 및 target journal
 - A. 제1저자 - manuscript writer
 - B. 교신저자 - 각 암종별 팀장
 - C. 공저자 - 각 팀원 및 분석 및 논문 작성에 공헌도가 큰 자
 - D.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 제출을 고려하기로 함.

- 7. 연구비- 의학회(3000만원) + 부인종양학회(3000만원)

2009년 제 3차 상임이사회

- 일 시 : 2009년 9월 8일(화) 오후 7시
- 장 소 : 취영루
- 참석자 : 김경태, 김영탁, 김영태, 박상윤, 안웅식, 유희석, 이응수, 황윤영, 이 찬 (이상 9명)

1. 회장님 인사말씀

2. 부회장님 경과보고

3. 토의사항

- 1) 회칙 개정의 건 :
참석자 전원에게 설명하여 반대의견없이 통과됨.
추계학술대회 정기이사회에서 보고하기로 함.
- 2) 진료권고안 개발 위원회 중간보고

제2차 부인종양학 교과서 편찬모임 회의록

- 일 시 : 2009년 9월 10일(목) 오후 7시
- 장 소 : 취영루
- 참석자 : 김승철, 남주현, 박상윤, 박영한, 유상영, 유희석, 이 찬, 장기홍, 장석준, 차문석, 황윤영 (이상 11명)

1. 회장님 인사말씀

2. 유희석 편집위원장님 경과보고

학회 회무보고

3. 토의사항

- 1) 교과서 최종 발간은 2010년 8월을 목표로 한다.
- 2) 개정 교과서는 산부인과 전공의와 전임의가 주로 참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
- 3) 집필진은 실제로 부인종양에 관련된 사람으로 하고, 각 학교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 4) 현재 '안'에 있는 단원 책임자는 논의 후 교체할 수 있다.
- 5) 단원 책임자가 간사 및 위원을 선정하여 집필 책임을 진다.
- 6) 단원 중 영상, 방사선 치료등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 기존 우리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분석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박상운)

이정원 교수님: NCCN 가이드라인은 consensus 가이드라인의 성격이 더 강하다.

라선영 교수님: 장기적으로 우리가 NCCN panel로 참가하여 가이드라인에 우리 consensus를 포함하게 할 수 있다.

안형식 교수님: 가이드라인의 목적이 중요할 것 같다. (ex. 가장 완벽한 evidence based guideline or 우리 실정에 맞는 주제를 다루는 guideline)

- Key question이 도출되면 우선 Cochrane library or CENTRAL에서 systemic review가 있는지 우선 검색을 하기로 함 (CENTRAL은 2004년까지의 문헌을 가지고 SR한 자료임으로 2004년 이후의 중요한 연구결과는 따로 검색하여 분석이 필요함)

- 즉 검색 방법은 Cochrane SR→CENTRAL→Medline순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 권고안의 recommendation은 GRADE방법론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음

각 세부팀 별로 key question 확정 위한 회의 가짐.

다음 회의: 2009년 10월 19일, 장소는 가톨릭대학교 (예정)

- 기존 우리 권고안을 근간으로 확정된 key question에 대하여 문헌 검색 및 평가 하여 다음 회의 1주일전인 10월 12일까지 취합하여 고대 예방의학교실(안형식 교수)의 수정, 보완을 받기로 함.

Key question list up 확정을 위한 회의

- 일 시 : 2009년 9월 21일 오후 7시
- 장 소 : 서울성모병원 403호 회의실
- 참석자 : 박상운, 이선경, 허수영, 김승철, 남계현, 류기성, 김병기, 김영태, 김용범, 이정원, 김재원, 이택상, 김태중, 강석범, 고재환, 김상운, 유상영, 최석철, 주 웅, 정현훈, 김찬주, 이근호, 장석준, 서상수, 성석주, 송은섭, 박정미(순천향, 핵의학), 조남훈(연세대, 병리학), 안형식(고대, 예방), 김현정(고대, 예방), 김용배(연세대, 치료방사선), 라선영(연세대, 종양내과), 송용중, 박세현, 백종철(좌석순)

1. 위원장 인사말 (박상운 교수님)

가이드라인 개요, 현황, 향후 일정 안내

2. 문헌조사 및 근거의 등급화 (주용 교수님)

“Key question에 따른 문헌 고찰 및 메타분석 한 결과가 publish되지 않았을 때 과연 이를 evidence로 간주하고 가이드라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evidence 근거를 제시하면 가능(박상운, 안형식)

3. 근거중심 지침 개발 방법 (안형식 교수님)

지침이 다루는 주제 세부팀별 20개 선정

MEDLINE, Cochrane 이용

주로 기존의 meta분석, systemic review를 이용해야 된다.

▶토의

유상영 교수님: 기존의 NCCN 가이드라인이 evidence에 근거하여 만들어져 있는데 문헌고찰을 아무리 잘 한들 NCCN 가이드라인 이상의 근거를 만들 수 있을까?

2009년 제 1차 임시이사회

• 일 시 : 2009년 9월 24일(목) 오후 1시 30분

• 장 소 : 그랜드힐튼 호텔 본관 2층 Crane룸

• 참석자 : 강순범, 김승조, 김승철, 김영탁, 남주현, 심재욱, 오병찬, 유희석, 이규완, 이응수, 이태성, 차순도, 한세준, 황윤영 (이상 14명)

1. 회장님 인사말씀

2. 회칙개정시안에 대한 보고 - 토의를 거쳐 무수정 통과됨.

학회 회무보고

▶ 2009년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회칙 개정(안)

2009. 9. 8

2008년 정기이사회 이전 회칙 파란색: 2008년 정기이사회 개정	정 관
<p>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The Kore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and Colposcopy)라 칭한다.</p> <p>제2조 (목적) 본회는 부인종양학과 콜포스코피에 관련된 여성생식기관의 종양병변에 관한 연구와 지식의 향상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교류를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 (소재) 본회 사무소는 서울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 본회를 둘 수 있다.</p>	<p>제1장 총 칙</p> <p>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 학회(The Kore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and Colposcopy)”(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p> <p>제2조 (목적) 본 학회는 부인 종양학과 콜포스코피에 관련된 여성생식기관의 종양병변에 관한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부인종양에 관한 진료와 이에 해당하는 질환의 예방을 위한 계몽 및 홍보를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함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교류를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1.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부를 둘 수 있다.</p> <p>제4조 (사업) 학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연구 발표 및 학술 강연회 개최 및 연구 활동 지원 2. 학회지, 기타 학술 도서 제작 및 대 국민 홍보물 제작 3. 관련 국내, 외 학회와의 상호 교류 및 유대 증진 4. 국내 관리 기준 설정 5. 국내 전국적 실태 조사 및 관리 기준 개발 6.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p>
<p>제4조 (회원)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p> <p>제5조 (소재)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의사로 한다.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공의 및 자연과학자로 한다. 명예회원은 본회에 목적에 공헌이 많은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이사회를 후원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p> <p>제6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p> <p>제7조 (퇴회와 제명) 회원은 임의로 퇴회 할 수 있으며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또는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명 될 수 있다.</p>	<p>제2장 회 원</p> <p>제5조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p> <p>제6조 (회원의 자격) 1. 학회의 정회원은 제 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전문의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공의 및 자연과학자로 한다. 명예회원은 본회에 공헌이 많은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특별회원은 본회를 후원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2.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학회에 제출하여 학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p> <p>제7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학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학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p>

학회 회무보고

제8조 (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연구 발표 및 학술 강연회 개최
 학회지, 회보 및 비정기 간행물의 발간
 국내외 학술대회의 개최, 참가 및 유관학회와 유대
 문헌의 교환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9조 (임원)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명예회장 약간 명
 고문 약간 명
 회장 1명
 부회장 2명
 사무총장 1명
 이사 약간 명
 감사 2명

제10조 (선거)

회장, 부회장, 명예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부인종양학 전문교수 중 추천하여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단, 부회장 1명은 학외에서 선출할 수도 있다.) 회장은 이사 및 상임이사 (학술, 기획, 편집, 심사, 재정, 국제교류, 홍보, 보험, 윤리, 정보통신, 수련, 부인암 예방 위원장, 사무총장 등)를 임명할 수 있다.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 추대한다. 고문은 명예회장단 회의에서 추대한다.

(2008 정기이사회)

명예회장단 회의는 차기 회장과 부회장 후보를 추천한다. 추천된 후보를 상임이사회,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단, 부회장 1명은 학외에서 선출할 수도 있다.) 회장은 이사 및 상임이사 (학술, 기획, 편집, 심사, 재정, 국제교류, 홍보, 보험, 윤리, 정보통신, 수련, 부인암 예방 위원장), 사무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 추대한다. 고문은 명예회장단 회의에서 추대한다. (개정내용: 차기 회장의 추천을 상임이사회에서 명예회장단으로 이전함)

제11조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상임이사회, 이사회 및 총회를 주재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3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단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면 회원의 자격을 회복한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약간 명
 2. 고문 약간 명
 3. 회장 1명
 4. 부회장 2명
 5. 사무총장 1명
 6. 이사 약간 명
 7. 감사 2명

제11조 (임원의 선임)

회장, 부회장은 명예회장단에서 부인종양학 전문교수 중 추천하여, 상임이사회 심의 후, 이사회 보고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단, 부회장 1명은 학외에서 선출할 수 있다.) 명예회장단이 추천한 회장, 부회장은 각각 상임이사회 심의 결과, 상임이사회 정족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부결시에는 추천을 반려하고, 재추천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반려된 추천인은 명예회장단에 의해 재추천 될 수 없다.
 회장은 이사 및 상임이사(학술, 기획, 편집, 심사, 재정, 국제교류, 홍보, 보험, 윤리, 정보통신, 수련, 부인암 예방 위원장), 사무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
 감사는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 추대한다. 고문은 명예회장단 회의에서 추대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학회 회무보고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상임이사는 해당 위원회를 운영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2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단임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 (임원의 임기)

1.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단임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사의 임기는 1년,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를 주재한다.

회장 유고시에는 제1 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하며, 제1 부회장은 차기 회장이 된다.

상임이사는 해당 위원회를 운영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명예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여, 학회의 중요사항을 보고 받고, 차기 회장 및 제2 부회장을 추천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 한다.

제13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로 한다.

제14조 (총회)

정기총회는 연 1회를 소집하여 임원의 인준과 일체의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 및 결산을 의결한다.

제4장 총회

제16조

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명예회장단 회의로 한다.

제17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과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를 소집하여 임원의 인준과 일체의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 및 결산을 보고 받는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학회 회무보고

<p>제15조 (이사회) 정기이사회는 연 1회를 소집하여 일체의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 및 결산을 의결한다.</p>	<p>제5장 이사회</p> <p>제18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명예회장과 상임이사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p> <p>제19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p>
<p>제16조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회장단, 명예회장단, 상임이사 및 감사가 참석하여 본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2008 정기이사회) 상임이사회는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전임회장, 회장, 상임이사가 참석하여 본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내용: 상임이사 회의에 명예회장과 감사가 빠지고 전임회장만 들어감)</p>	<p>제6장 상임이사회</p> <p>제20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직전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연 2회 이상 개최하여 본회의 중요한 사안을 의결한다.</p> <p>제21조 (명예회장단 회의) 명예회장단 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명예회장 및 회장이 참석하여 본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고받는다.</p>
<p>제17조 (명예회장단 회의) (2008 정기이사회) 명예회장단 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명예회장 및 회장이 참석하여 본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고한다.(신설)</p>	<p>제7장 재산과 회계</p> <p>제22조 (재원)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p>
<p>제18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찬조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p>	<p>제23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p>
<p>부 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2. 본 회칙의 개정은 상임이사회,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자 과반수 찬동을 얻어야 한다. 3. 본 회칙은 회칙 통과일 (2001.11.2)로부터 시행한다. 4. 회칙 12조는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회 산하에 대한부인종양연구회 (Korean Gynecologic Oncology Group, KGOG)를 협의체로 둔다. 	<p>제8장 사무부서</p> <p>제24조 (사무국)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p>
<p>부 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 한다. 2. 본 회칙의 개정은 상임이사회, 명예회장단 회의,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자의 과반수 찬동을 얻어야 한다. 3. 본회 산하에 대한부인종양연구회(Korean Gynecologic Oncologic Group, KGOG)를 협의체로 둔다. 	<p>제9장 보 칙</p> <p>제25조 (준용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p>

학회 회무보고

부인암 진료권고안 작성 소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09년 10월 19일(월) 오후 7시 30분~10시
- 장 소 : 부인종양학회
- 참석자 : 김병기, 김재원, 김태중, 김현정, 남계현, 박상윤, 안형식, 이정원, 이택상, 장석준, 정현훈, 주 웅 (가나다 순)

모두 발언

박상윤 - 취지, 개요 설명, key questions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하여 등급화 과정 설명

- 1) 각 암종 별 Key question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 발표함 (각 팀 간사)
자궁경부암 (진단, 일차치료, 추적관찰 및 재발치료팀)/자궁체부암 팀/난소암 팀
- 2) Key question의 내용
 - A. 확실한 evidence에 의해 잘 알려진 내용 포함 되지 않음.
 - B. 주로 실제 임상사들이 궁금한 evidence가 별로 없는 내용이 대부분임
 - C. 그러므로 조사한 문헌들 중 systemic review나 RCT는 거의 없었으며 일부 retrospective observational studies가 있었음.
- 3) 문헌조사 범위 / evidence조사 범위 (고대 예방의학 안형식 교수)
 - A. Version 1.1 권고안 내용 중 class 1-2의 내용 즉, 기존의 연구를 통하여 대부분의 임상사가 동의하고 있는 내용은 그대로 사용하되 최근 보고된 reference는 추가하기로 함.
- 4) Key question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는 이전 버전의 addendum을 수정하면서 같이 포함시키기로 하고 또한 따로 분리시켜 각 암종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기로 함
- 5) Key question에 대한 분류 (이대 주용교수): 현재 key question의 내용은 대부분 evidence가 부족하여 문헌의 등급화과정을 진행할 수 없어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것 제안
 - A. 문헌 분석을 통하여 evidence의 등급을 조사할 질문
 - B. 문헌을 찾을 수 없어 향후 consensus meeting에서 논의해야 할 질문
 - C. 전혀 evidence가 없어 제외해야 할 질문
→ 위원들이 동의함. 상기 분류의 결정은 각 팀장 및 간사가 결정하도록 함.
- 6) 다음회의
 - A. 전체 위원이 모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팀장, 간사 및 타 학회 위원만 모여 진행하도록 함. 이때 각 팀 간사님들은 선정된 질문에 대한 evidence table을 작성해 오기로 결정함.

B. Evidence table을 정리해오면 이후 Grade pro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내용은 고대 예방의학교실의 도움을 받기로 함. 'level of evidence'와 'level of recommendation'은 본 프로그램에 따르기로 함.

- 7) 고대 안형식 교수: 2월 2일에 외국연구자를 초빙하여 Grade에 대한 workshop을 본 권고안 위원을 대상으로 가지기로 함. 그리고 그때까지 본 위원회에서 조사한 grade방법론에 대한 감수를 요청하기로 함.
- 8) 문헌 조사를 위한 참고 website, www.tripdatabase.com (SR이나 RCT를 조사하는데 유용)
- 9) 다음회의는 해외학회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여 11월 25일(수)에 모이기로 결정함.
- 10) 본 가이드라인은 추후 현재 개정 중인 부인종양학회 교과서에 부록으로 게재하기로 함. 단, 자궁경부암은 의협 주관 하에 각 학회와 공동 개발하였음을 명시함.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Key question을 문헌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 (1) 문헌 분석을 통하여 evidence의 등급을 조사할 질문
- (2) 문헌을 찾을 수 없지만 향후 consensus meeting에서 논의해야 할 질문
- (3) 전혀 evidence가 없고 제외해야 할 질문

으로 나누어 (1)의 질문에 대해서 evidence table을 만들어 올 것, (2)와 (3)은 문헌조사 자료와 팀내 의견 수렴결과를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4차 학술위원회

- 일 시 : 2009년 10월 27일(화) 오후 7시
- 장 소 : 부인종양학회 사무국
- 참석자 : 김병기, 김재원, 이낙우, 이응수, 이 찬 (이상 5명)

1. 학술위원장님 인사말씀

2. 2009년 제3차 학술위원회 회의록 보고

3. 논의사항

- 1) 제 25차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논의
날짜 : 2010년 4월 23일(금) 장소 : 제주도 라마다호텔
- 2009년 춘계 학술대회와 동일한 format (오전 plenary session 등)
- Tumor board (김병기 교수 주관)
- 초록 접수 등 일정 공지 필요 - 12월 마감 목표로 추진

학회 회무보고

- 2010년 1월 학술위원회에서 학술대상, 구연, 포스터 확정
- 2010년 6월 10일~11일, 제 36차 대한암학회
- 대한의학회의 각 학회 학술 활동 평가 항목
 - : 영어 진행 세션, 연구 결과 영어 발표 세션
 - : 초청 외국 연자에게 Plenary session 연제 좌장 맡는 방안
- 2) 초청 외국연자 논의
 - 우선 3명만 섭외: Wui-Jin Koh(유상영 교수)
 - du Bois, Andreas(김재원 교수)
 - 일본연자(2009.11, ASGO학회에서 섭외)
- 외국연자는 4연제 발표
- 나머지 3연제는 국내연자(Fertility preservation in patients with gynecologic cancers)

2009년 제1차 Cadeva를 이용한 부인암 수술실기 TFF회의

- 일 시 : 2009년 10월 29일(목) 오후 7시
- 장 소 : 학회 사무국
- 참석자 : 권용일, 김태진, 송은섭, 송승훈, 안웅식, 이택상, 이 찬

목 적 : 부인암을 전공하는 부인과의사를 위한 해부학적인 지식과 실질적인 수술방법의 습득을 향상

1. 인사말씀
2. 지난(2008) Cadever 워크숍 보고
3. 토의사항
 - 1) 제1차 워크숍과 같은 format으로 진행
 - 2) 원활한 준비를 위해 제1차 워크숍 준비를 TFF외에 인원추가
 - 3) 일시 및 장소 : 2010년 2월 27~28일, 강남성모병원
 - 4) 외국연자 섭외(헝가리, 일본연자중 섭외)-추후 다시 논의
 - 5) 제1차 워크숍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하기로 함.
 - 6) 연자 추천(이윤순, 한승호, 남용석, 유영경, 박종택 교수)
 - 7) 2차 모임은 의 일시는 2009년 11월 13일 열기로 함.

제5차 부인암예방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09년 11월 6일(금) 오후 7시
- 장 소 :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사무국
- 참석자 : 송용상(위원장), 이 찬(사무총장), 강석범, 권용일, 김용범, 이정필

▶ 회의내용

1. 부인암 환자를 위한 생활 권고안 웹사이트 검토에 관한 건
 - 가. 웹사이트 내용 수정 사항
 - 1) 첫 번째 화면의 하단에 아래와 같이 표시하기로 함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회장 황윤영
부인암예방위원회 위원장 송용상
위원 : 강대회, 강석범, 권용일, 김병기, 송승훈, 이선영
이정필, 최석철, 황성욱
 - 2) 인포랑(주)와 협의하여 양식을 통일하기로 함
 - 3) 목차의 하단부에 관련 사이트를 두고 5-7개의 link site 주소를 표시하기로 함
 - 나. 검색 웹의 등재에 관한 내용 : 이정필 교수 담당으로 한다.
2.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홍보 문건에 관한 건
 - 사진 제작된 문건을 검토하고 시안대로 하기로 함. 단 집중대상과 방법은 아래의 내용으로 하기로 함.
 - 집중대상은 10세-25세의 여성이며, 면역원성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예방효과가 가능한 연령은 26세-55세로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집중유무를 결정합니다.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은 3회, 삼각근에 근육주사합니다.

편집위원회 7기 제 10차 회의록

- 일 시 : 2009년 11월 24일(목) 오후 6시 50분 ~ 7시 20분
- 장 소 : 학회 사무실
- 참석자 : 이응수, 유희석, 김재원, 이철민 (이상 4명)

1. 제 9차 편집위원회 회의록 - 무수정 통과
2. 보고사항
 - 1) 9월호 발간함
 - 2) 국제학술지발행지원 신청 탈락
 - 3) 원고 접수 현황
 - 4) 의무적 논문 제출 대상자 목록 - 소식지에 게재 예정
 - 5) www.ejgo.org 수정함 - reporting guideline
 - 6) ESGO-FIGO-ASGO/JSGO/JSGOS에서 각 50-50-100부 배포함
3. 논의 사항
 - 1) 김찬주 선생 논문 12월호 게재 요청 건
 - favor 없이 통상적인 논문 처리 과정 거치기로 함
 - 2) 12월호 Editorial, Review, Meeting report, Original articles, etc
 - Editorial은 아주대 전미선 교수에게 요청
 - Review는 원자력의학원 류상영 선생 작성 중임

학회 회무보고

- Meeting report: ASGO는 대만의 Wang 교수, KGOG/KSGOC는 정현훈 교수
- Original article은 충분함
- 말미에 reviewer list 및 노고에 대한 감사의 글 신기로 함
- 3) China GOG, Shanghai GOG 측에서 JGO를 그네들의 official journal로 요청한 건
 - 중국 측 추가 논의 결과 지켜보기로 함 (Dr. Cao & Dr. Zang)
- 4) 2010년 3월호 종설
 - Robert Burger &/or Edward Trimble
- 5) 의무적 논문 제출 대상자 중 기한 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차후 학술대회에서 학술상 등을 수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로 함

명예회장단 및 상임이사회 상견례

- 일 시 : 2009년 12월 21일(월) 오후 7시
- 장 소 : 반포 메종
- 참석자 : 김승조, 박찬규, 이효표, 목정은, 김재욱, 남궁성은, 강순범, 이규완, 김경태, 남상륜, 이준모, 유희석, 김영태, 류기성, 이선경, 김원규, 이응수, 이철민 (총 18명)

1. 회장님 인사말씀
2. 상견례

제 1차 학술위원회

- 일 시 : 2010년 1월 19일(화) 오후 7시
- 장 소 : 부인종양학회 사무국
- 참석자 : 이응수, 이준모, 권용일, 김병기, 김용만, 김재원, 김재훈, 김태응, 남계현, 박태철, 이선경, 이철민, 조치흠 (이상 13명)

1. 회장님 인사말씀
2. 학술위원장님 인사말씀
3. 2009년 제 4차 학술위원회 회의록 보고 : 무수정 통과

4. 보고사항

- 1) 2009년 제24차 춘계학술대회
 - 날짜: 2009년 4월 17일(금) 장소: 대구 인터블고호텔
 - 등록인원: 297명
- 2) 2009년 제15차 추계심포지엄
 - 날짜: 2009년 11월 13일(금) 장소: 서울아산병원
 - 등록인원 : 175명

5. 논의사항

- 1) 제 25차 춘계학술대회
 - 날짜 : 2010년 4월 30일(금) 장소 : 제주 라마다호텔
- 2) 프로그램

Session I

Dr. Jonathan Ledermann, University College London
- Title: Chemotherapy in EOC: focused on ICON trials
Title: Molecular prognostic and predictive factors in epithelial ovarian cancer

Dr. Wui-Jin Koh, University of Washington
- Title: Systemic therapy following primary CCRT in locally advanced cervical cancer

김재원 교수님 (서울의대)

- Title: 자궁내막암에 관한 연제

*김재원 교수님께서 1~2주 안으로 연제를 알려주기로 함.

Session II

- Plenary Session은 6연제로 하며 첫 3연제는 영어구연하기로 함.

- Plenary Session 모집공고를 일반 연제 모집공고와 분리하기로 함.

Luncheon seminar

Free Communications

- 일반 연제 모집공고를 내어 2월 말까지 연제를 받기로 함.

- 3월 초 학술위원회에서 분류하여 심사하기로 함.

Afternoon Session

- Fertility preservation으로 구성

- Cervical cancer : 계명대의대 조치흠 교수님

- Ovarian cancer : 울산의대 김용만 교수님 (또는 아산병원 타 교수님)

- Endometrial cancer : 가톨릭의대 이근호 교수님

- 부인암 진료권고안 발표

기타

- 학술대상 공고해야 함.

학회 회무보고

- 학술상(구연 및 포스터) : 학회 규칙을 지키지 않은 기관 /회원은 대상에서 제외
- 공로상 공고해야 함 : SCI 논문에 JGO 논문을 인용한 회원에 대한 시상, 기간은 지난 1년
 - * 학술대상 및 학술상 수상 후보자는 지명 후 1년 내에 JGO에 full paper를 제출해야 다음 학술대회에서 비로서 수상자로 선정, 고지된다.

3) 부인암진료권고안 공청회 : 김병기 교수님(성균관대의대)

편집위원회 7기 제 11차 회의록

- 일 시 : 2010년 2월 16일(목) 오후 7시
- 장 소 : 학회 사무실
- 참석자 : 유희석, 김영태, 김재원, 이철민 (이상 4명)

1. 제 10차 편집위원회 회의록 - 무수정 통과

2. 보고사항

- 1) 12월호 발간함
- 2) 원고 접수 현황
JGO 投稿狀況 : 2009년 12월 5일까지 投稿分
投稿數 106 編(Accept 43 編, Reject 36 編, Under
Review 21 編, 기타 6編)
Rejection rate는 ~45%, 대부분은 case report
- 3) Trimble, Chi, Kitchener, Armstrong 종설 의뢰
- 4) 의무적 논문 제출 대상자 목록
- 5) www.ejgo.org, updated & 인포랑 담당자 교체
- 6) SCOPUS 등재 신청함
- 7) JGO 2008~2009년 사이의 논문이 SCI(E) 논문에 인용된 횟수: 25
- 8) 학회지 공로상 공지 건:
제 1저자를 우선한다.
여러 편에 인용한 경우는 기본급 이외에 추가 상금을 고려한다.

3. 논의 사항

- 1) 종설 요청 건 - 부결
'Ezrin and the metastatic behavior of common estrogen dependent tumors'
- 2) 3월호 Editorial -김재원, Meeting Report - Hexton (6월호용), Letter to Editor - 김영태

- 3) 학회지 배포 계획: SGO, JSOG, TAOG, 태국, 인도, etc.
배포 위해 현행 800부에서 100~200부 추가 제작시 비용 검토 후 결정
- 4) 다음 모임은 5월 중에 개최

2010년 상임이사회

- 일 시 : 2010년 2월 19일(금) 오후 7시
- 장 소 : 단
- 참석자 : 김수녕, 김승철, 김영탁, 김영태, 김원규, 류기성
송용상, 이윤순, 이응수, 이준모, 이철민 (이상 11명)

1. 회장님 인사말씀

2. 토의사항

- 1) 국제 암엑스포 참여에 관한 건
 - 매일경제 미디어그룹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2010년 4월 22일(목)-25일(일)에 코엑스에서 국제 암엑스포가 개최될 예정이며 본 학회에도 참여할 것을 요청해 옴.
 - 산부학회에서는 2010년 5월 10일에 '여성 건강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자궁경부암을 주제로 하는 부스 전시를 기획하고 있음.
 - 김영탁 교수가 산부학회 학술위원장이며 동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본 학회가 국제 암엑스포에도 같은 내용으로 참여 가능할지 검토하기로 함.
 - 부스 참여가 확정되면 건강 강좌도 지원하기로 함.
- 2) 2011년 학술대회 날짜에 관한 건
 - 학술위원회에서 외국 연자 초청 등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년 후의 학술대회 날짜를 조기에 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건의함.
 - 춘계학술대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4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하기로 하고, 장소는 차기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함.
- 3) 학술대상 및 우수논문상 선정 기준에 관한 건
 - 편집위원회에서 각종 학술상 시상 후 JGO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JGO에 수록된 논문을 학술상 선정 대상으로 할 것을 건의함.
 - '학술상 선정자'를 대상으로 시상하고 추후 논문이 제출된 후 상금과 함께 정식 학술상을 다시 시상하기로 함.

회원동정

- 울산의대 남주현 교수님께서 대만산부인과학회로부터 명예 회원으로 추대되었습니다. 3월 13일 타이완 타이중에서 열리는 대만산부인과학회에서 위촉패를 수상하셨습니다. 대만 산부인과학회는 학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국내 산부인과 의학자로는 두 번째로 남 교수님을 명예회원으로 추대했습니다. 첫 번째 명예회원은 마리아병원 장윤석 교수님이십니다.
- 아주의대 유희석 교수님께서 3월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제41차 미국부인암학회(SGO) 본회의에서 '자궁경부암의 수술 후 치료'를 주제로 구연발표를 하셨습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논문이 미국부인암학회 본회의에서 구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대구가톨릭대병원 최윤석 교수님께서 영국 캠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에서 출간하는 세계 인명사전 2010년판에 등재됩니다. 산부인과 암 치료에 관한 연구업적과 부인과 질환의 복강경 수술에 관한 연구업적이 인정되어 'IBC' 등재가 결정되었습니다.
- 순천향의대 김정식 교수님께서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0년 판에 등재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2008년 IBC(영국 캠브리지 국제 인명센터)의 '세계의 선도적인 보건전문가' 부문에, 2009년에는 ABI(미국 인명정보기관)의 '의료 및 보건분야의 올해의 인물'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 경희의대 정민형 교수님은 최근 미국의 ABI(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 인명사전에 등재됨으로써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미국 마르퀴즈 후즈후(Marquis Who's Who),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 미국인명정보기관(ABI, 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에 모두 등재되는 트리플 크라운(Triple Crown)을 달성하셨습니다.
- CHA 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김승조 교수님께서 지난 4월 3일~5일 일본 교토 국제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된 제6회 일본산부인과학회(JSOG 2009)에서 일본산부인과학회 명예회원으로 선정돼 단독 특별표창을 받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 박상민(울산의대), 김병륜(원광의대), 박지원(세종산부인과) 선생님께서 새로운 학회 회원으로 입회하셨습니다.

■ 2009년 연회비 납부명단

강우대, 고석봉, 고재환, 곽현성, 권용일, 기경도, 김경태, 김대연, 김두표, 김변륜, 김성한, 김승조, 김영재, 김영탁, 김용만, 김용욱, 김우영, 김원규, 김정식, 김종혁, 김철범, 김태중, 김현준, 김홍배, 김희숙, 남계현, 남주현, 노주원, 노홍태, 류기성, 목정은, 박성호, 박영한, 박일수, 박지원, 박진완, 박찬용, 성석주, 손우석, 송은섭, 안웅식, 유상영, 윤주희, 이광범, 이규완, 이낙우, 이민석, 이선경, 이선영, 이선주, 이종민, 이철민, 이 탁, 이태성, 이태화, 임소이, 전 섭, 정상근, 조삼현, 주원덕, 차문석, 최호선, 한구택

2010년 주요 학회 일정

2nd International Video Workshop on Radical Surgery in Gynaecological Oncology

April 8~10, Prague, Czech Republic
Website: www.iww2010.cz

AACR 101st Annual Meeting 2010

April 17~21, Washington DC, USA
Website: www.aacr.org

62nd Jap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April 23~25, Tokyo, Japan
Website: www.jsog.or.jp

10th KGOG Symposium & Workshop

April 29, Jeju, Korea
Website: www.kgog.org

40th Semi-Annual Meeting of Kore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 Colposcopy

April 30, Jeju, Korea
Website: www.ksgoc.or.kr

15th Taiwan Joint Cancer Conference

May 1~2, Taipei
Website: www.tago.org.tw

3rd 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Irani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May 4~6, Tehran, Iran
Website: www.irsgo.org

1st EAGC-ESO Congress on management guidelines in gynaecological oncology

May 16~19, Budapest, Hungary
Website: www.eagc.hu

2010 ASCO Annual Meeting

June 4~8, Chicago, USA
Website: www.asco.org

GCIG 4th Ovarian Cancer Consensus Conference

June 24~28, Vancouver, Canada
Website: www.gcig.igcs.org

26th International Papillomavirus Conference

July 3~8, Montreal, Canada
Website: hvp2010.org

48th Meeting of Jap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July 8-10, Tsukuba, Japan
Website: www.jsgo.gr.jp

1st Educational Workshop of ASGO

July 31, Seoul, Korea
Website: www.asiansgo.org

Thai Gynecologic Cancer Society Annual Meeting

August 12~14, Pattaya
Website: www.tgcthailand.com

Middle Taiwan Academic Conference of TAGO (Taiwan Association of Gynecologic Oncology)

August 14~15, Taichung
Website: www.tago.org.tw

13th Biennial Meeting of the IGCS

October 23~26, Prague, Czech Republic
Website: www.igcs.org

19th Annual Meeting of Association of Gynecological Oncologists of India (AGOI)

November 12~14, Bangalore
Website: www.agoi.org

Northern Taiwan Academic Conference of TAGO

November 20~21, Taipei
Website: www.tago.org.tw

編輯後記

어느덧 새로운 봄을 알리는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작년 가을에는 소식지를 발간하지 못한 탓에 이번에는 지난해 소식과 올해 초에 있었던 내용들을 함께 묶었습니다. 대부분의 공식적인 내용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회원 여러분께 최근 국제 학회의 동향을 전해드리는 학회참관기가 분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를테면 GOG 참관기가 두 편 실려있지만 한번은 2009년 가을, 한번은 2010 봄에 있었던 GOG 미팅의 참관기입니다. 두 미팅 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이번 호에는 ESGO (2009)와 SGO (2010)가 실려있어서 두 학회 간의 차이점도 살펴보고 FIGO, APAGE, AACR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도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학회 주관의 KSGOC, 카테바 연수 참관기도 외국 학회와 비교해서 꼭 한번 읽어주시고 학회 발전을 위해 더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호의 인사말을 양보해주신 황윤영 전회장님께 감사드리고,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를 넘기고 저희 학회도 새 봄과 같이 새로운 도약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식지 소위원회 위원장 김 병 기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조직도

(2010년 4월 현재)



학술위원회	기획위원회	편집위원회	심사위원회	재정위원회	수련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홍보위원회	보험위원회	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부인암예방위원회
이준모 (기톨릭의대) 권용일 (한림의대) 김병기 (성균관의대) 김용만 (울산의대) 김원규 (고신의대) 김재원 (서울의대) 김재훈 (연세의대) 김태웅 (기톨릭의대) 남계현 (순천향의대) 박태철 (기톨릭의대) 이선경 (경희의대) 이윤순 (경북의대) 조치흠 (계명대의대)	김영탁 (울산의대) 권용일 (한림의대) 김석모 (전남의대) 김용민 (차의과대학) 김용범 (서울의대) 김중희 (울산의대) 김태중 (성균관의대) 김태진 (관동의대) 박동춘 (기톨릭의대) 유상영 (원지력의원) 주 응 (이화대의대)	유희석 (아주의대) 김석모 (전남의대) 김승철 (이화대의대) 김영태 (연세의대) 김재원 (서울의대) 김중희 (울산의대) 박영한 (한림의대) 이준민 (경희의대) 장기홍 (아주의대) 조치흠 (계명대의대)	이윤순 (경북의대) 강석범 (국립암센터) 고석봉 (대구기톨릭) 김기형 (부산의대) 김대연 (울산의대) 김도균 (경주동국의대) 문해성 (이화대의대) 박철민 (제주대의대) 성석주 (차의과대학) 송승훈 (고려의대) 장석준 (아주의대)	김경태 (연세의대) 김상운 (연세의대) 김성엽 (제주의대) 김학순 (충북의대) 노정훈 (대전직업대의대) 박태철 (기톨릭의대) 송은섭 (인하의대) 이낙우 (고려의대) 이두진 (영남의대) 이재관 (고려의대) 이택상 (서울의대)	김수녕 (건국의대) 김재훈 (연세의대) 김진우 (기톨릭의대) 배재만 (건국의대) 성석주 (차의과대학) 송은섭 (인하의대) 유상영 (원지력의원) 이중민 (경희의대) 이택상 (서울의대) 장기홍 (아주의대) 주 응 (이화대의대)	배덕수 (성균관의대) 권상훈 (계명대의대) 김석모 (전남의대) 김태만 (관동의대) 남계현 (순천향의대) 배재만 (건국의대) 이근호 (기톨릭의대) 정대훈 (인제의대) 주 응 (이화대의대) 최철훈 (성균관의대) 허수영 (기톨릭의대)	류기성 (기톨릭의대) 김홍곤 (원광의대) 남상륜 (충남의대) 박진만 (단국의대) 박 현 (차의과대학) 심재철 (동국의대) 이근호 (기톨릭의대) 임경택 (관동의대) 전 삼 (순천향의대) 정민형 (경희의대) 주원덕 (울산의대) 최석철 (원지력병원) 황인택 (대전직업대의대)	김승철 (이화대의대) 이낙우 (고려의대) 김재원 (서울의대) 고석봉 (대구기톨릭) 고재환 (인제의대) 배재만 (건국의대) 이광범 (가천의대) 이정원 (성균관의대) 이정원 (성균관의대) 이택상 (서울의대) 주 응 (이화대의대) 최석철 (원지력병원)	이선경 (경희의대) 김용만 (울산의대) 김재원 (서울의대) 남계현 (순천향의대) 남상륜 (충남의대) 박동춘 (기톨릭의대) 박영한 (한림의대) 박충학 (단국의대) 박태철 (기톨릭의대) 심재철 (동국의대) 윤민수 (부산의대)	김원규 (고신의대) 김기형 (부산의대) 김대연 (울산의대) 남계현 (순천향의대) 이선주 (건국의대) 이정원 (성균관의대) 이철준 (고신의대) 이태화 (고신의대) 장두영 (인제의대) 정대훈 (인제의대) 최일철 (동아대의대)	송용상 (서울의대) 강대회 (서울의대) 강석범 (국립암센터) 권용일 (한림의대) 김병기 (성균관의대) 김용범 (서울의대) 이정필 (아주의대) 이선영 (차의과대학) 최석철 (원지력의원) 한승수 (중앙의대) 이재형 (동국의대)

부인암진료권고안소위원회
위원장: 박상윤 (국립암센터)
간 사: 김병기 (성균관의대)

소식지소위원회
김병기 (성균관의대)
장석준 (아주의대)
주원덕 (울산의대)
이정원 (성균관의대)
한승수 (중앙의대)

정보소위원회
김승철 (이화대의대)
김재훈 (연세의대)
김용범 (서울의대)
김관식 (전북의대)
김상운 (연세의대)

이 사					
강순범 (서울의대)	김학순 (충북의대)	박종섭 (기톨릭의대)	오병찬 (전북의대)	이효표 (건국의대)	
강재성 (고려의대)	김현찬 (인제의대)	박종택 (표천중문의대)	유희석 (아주의대)	장윤석 (마리아병원)	
김경태 (한양의대)	김현호 (동아의대)	박찬규 (연세의대)	윤민수 (부산의대)	전중수 (관동의대)	
김기태 (인제의대)	남궁성은 (기톨릭의대)	박찬용 (가천의대)	이경희 (원지력의원)	조삼현 (한양의대)	
김성현 (고신의대)	남상륜 (충남의대)	박충학 (단국의대)	이규원 (고려의대)	조영래 (경북의대)	
김수녕 (건국의대)	남계현 (순천향의대)	배덕수 (성균관의대)	이선경 (경희의대)	차순도 (계명대의대)	
김승조 (표천중문의대)	남주현 (울산의대)	배도환 (중앙의대)	이승호 (영남의대)	최호선 (전남의대)	
김승철 (이화대의대)	노흥태 (충남의대)	배동한 (순천향의대)	이응수 (인제의대)	한세준 (조선의대)	
김영탁 (울산의대)	목정은 (관동의대)	배석년 (기톨릭의대)	이의돈 (원지력의원)	허주엽 (경희의대)	
김영태 (연세의대)	문 형 (한양의대)	서영욱 (계명대의대)	이준모 (기톨릭의대)	황윤영 (표천중문의대)	
김원규 (고신의대)	박상윤 (국립암센터)	송용상 (서울의대)	이진웅 (울지의대)		
김재욱 (관동의대)	박인서 (성균관의대)	심재욱 (제일병원)	이태성 (대구기톨릭의대)		
김중덕 (전북의대)	박일수 (경북의대)	안응식 (기톨릭의대)	이현영 (청화병원)		

New Paradigm

Cremophor-EL Free Paclitaxel

- **Advanced Delivery System**
: Cremophor-EL free formulation
- **High Response Rate**
: 고용량 투여가 가능한 신개념 Paclitaxel
- **Good Safety Profile**
: 낮은 혈액학적 부작용^{1,2}



GENEXOL^{PM}
Paclitaxel - Loaded Polymeric Micelle

제조원
samyang
삼양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명동 48-4
TEL : 042690-3114

판매원
CJ Pharma
씨제이제일제당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빌딩
TEL : 080-700-8802

제품정보 [성분·함량] 제넥솔피엠주 1바이알(255 밀리그램)중 30밀리그램/100밀리그램 [효능·효과]·유방암 1) 전이성 유방암 또는 재발성 유방암의 1차 치료 2) 표준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유방암의 치료에 2차 요법제로 사용 ·폐암 1)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 [용법·용량]·유방암 : 매 3주마다 이 약 300mg/m²을 3시간 동안 점적 정주 투여 ·폐암 : 3주마다 이 약을 용법용량에 따라 3시간 동안 점적 정주한 후 시스플라틴 60mg/m²을 점적 정주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ferences - 1. Breast Cancer Res Treat (2008)108: 241-250 2. Annals of Oncology 18: 2009-2014, 2007



Cervarix[®]

Strong cervical cancer protection that's designed to last

- **With AS04, Cervarix[®] elicits antibody levels that start high and stay high^{1,2,3}**

- The innovative adjuvant system, AS04, stimulates a strong immune response.¹
- Cervarix[®] induces high HPV16/18 antibody levels in both young girls and older women from 10 to 55 years of age.^{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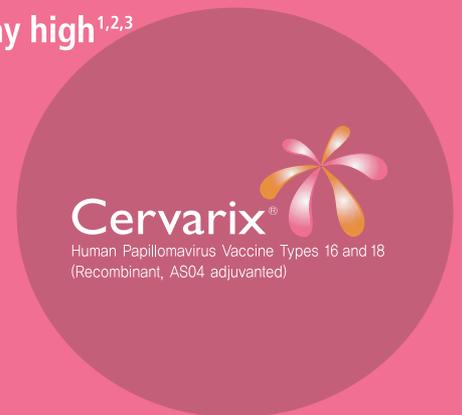
- **Cervarix[®] provides sustained protection^{4,5,6}**

Up to 6.4 years after the first vaccine dose

- Protective antibody levels for HPV 16/18 remained at least 11 times higher than those from natural infection.^{5,6}
- Cervarix[®] provided up to 100% protection against CIN2+ lesions caused by HPV 16/18.^{5,6}

- **Cervarix[®] is generally well-tolerated^{4,6,7}**

- The majority of adverse reactions were mild-to-moderate and transient.^{4,7}



Ref. 1. Giannini SL et al. Enhanced humoral and memory B cellular immunity using HPV 16/18 L1 VLP vaccine formulated with the MPL/aluminium salt combination (AS04) compared to aluminium salt only, *Vaccine* 2006;24: 5937-49
2. Schwarz TF. Human papillomavirus -16/18 candidate vaccine adjuvanted with AS04 and its impact on the incidence of cervical cancer, *Expert Rev Obstet Gynecol.* 2007;2(3): 293-303
3. Cervarix[®] Korea Approved Full Product Information (2008.07.14)
4. Paavonen J et al. Efficacy of a prophylactic adjuvanted bivalent L1 virus-like-particle vaccine against infection with human papillomavirus types 16 and 18 in young women: an interim analysis of a phase III double-blind, randomised controlled trial, *Lancet* 2007;369: 2161-70
5. Wheeler CM et al. High and sustained HPV-16 and 18 antibody levels through 6.4 years in women vaccinated with Cervarix[™] (GSK HPV-16/18 AS04 vaccine), *ESPID* 2008: Abstract
6. Harper DM et al. Sustained immunogenicity and high efficacy against HPV-16/18 related cervical neoplasia: long term follow up through 6.4 years in women vaccinated with Cervarix[™] (GSK's HPV 16/18 AS04 candidate vaccine), *Gynecol. Oncol.* 2008;109: 158-9
7. Harper DM et al. Efficacy of bivalent L1 virus-like particle vaccine in prevention of infection with human papillomavirus types 16 and 18 in young women: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 *Lancet* 2004;364: 1757-65

